

예술과만남

2023+2024 — Vol 165

12+0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포커스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남자
스트라빈스키와 <봄의 제전>

인터뷰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지휘자 임한정

예술 알고리즘 게임과 예술 그 흥미로운 관계

담당자의 노트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Igor Stravinsky, 1882~1971)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발레곡 <불새>, <페트루슈카>로
성공을 거두고 그의 대표작 <봄의 제전>으로
당시의 전위파 기수로 주목 받았다.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혁신 아이콘이자
롯데 높은 완벽주의자인 그를
대중들이 사랑하는 이유다.

Igor_Stravinsky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의 감동

남을 감동시키려면
우선 자기가 감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결코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

좁고 고단한 삶의 한 켠에서 마주한 무대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이 데워지고
연주가 끝난 후 밀려오는 벅찬 감동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CONTENTS



GGAC's Theme

- 08**
아트 인사이트
희망은 예술을 타고
- 12**
포커스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남자
스트라빈스키와 <봄의 제전>
- 16**
인터뷰 I
사랑과 치유를 담은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지휘자 임현정
- 20**
인터뷰 II
한국무용의 호흡과 몸짓
이 순간 존재하는 존재의 이야기
안무가 김동규
- 24**
내다보기
감흥의 여운, 해넘이
감동의 설렘, 해돋이

On Stage

- 28**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 마스터 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소멸과 탄생 감각적 몸의 언어
- 30**
프리뷰, 둘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찰
- 32**
프리뷰, 셋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음악계 별들이 뭉쳤다
- 34**
리뷰, 하나
가을에 꼭 들어야 할 마스터피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 36**
리뷰, 둘
내면의 나를 깨우는
원초적 광음과 장르의 혼재
<디오니소스 로봇>

Art N Culture

-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영화 <오펜하이머> 속
<봄의 제전>의 상징성
- 44**
이달의 책과 음반
내려앉은 시선
걸터앉은 생각
- 46**
컬처로드
우리의 삶 속으로 성큼 들어온
미디어아트
- 50**
예술 알고리즘
게임과 예술
그 흥미로운 관계
-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 Story

- 58**
GGAC VLOG
어서 와 여긴 처음이지!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숨은 명소
- 60**
담당자의 노트
2023 기획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나에게 예술의 의미를 다시 물어본다
-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 64**
CALENDER
12·1월 주요 공연 일정
-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3+2024 VOL.165 12+01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3년 12 + 2024년 1월호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염한글,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ISSN 2234-5949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이자 괴짜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입니다. 그는 언제나
새롭고, 예기치 못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결작들에 담긴 빛깔, 리듬,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한 소리는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울음도 주고 또
춤도 주게 만듭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에서 그
원시적인 봄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TALK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위대한 이유는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분노를 정화로 치환하며 우리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기 때문 아닐까?
황금빛 화가 클림트는 든든한 아군으로 희망을 축복했고,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불협화음의 새된 소리로 희생에서 탄생을 보듬었다.
지휘자 임헌정이 전하는 고운 마무리와 새해의 힘찬 시작은 또 어떠한가?
예술이 술화하는 위로와 희망은 어쩌면 이음동의어일지 모를 일이다.



우
|
문
|
와
|
희
|
망



GOGGAC'S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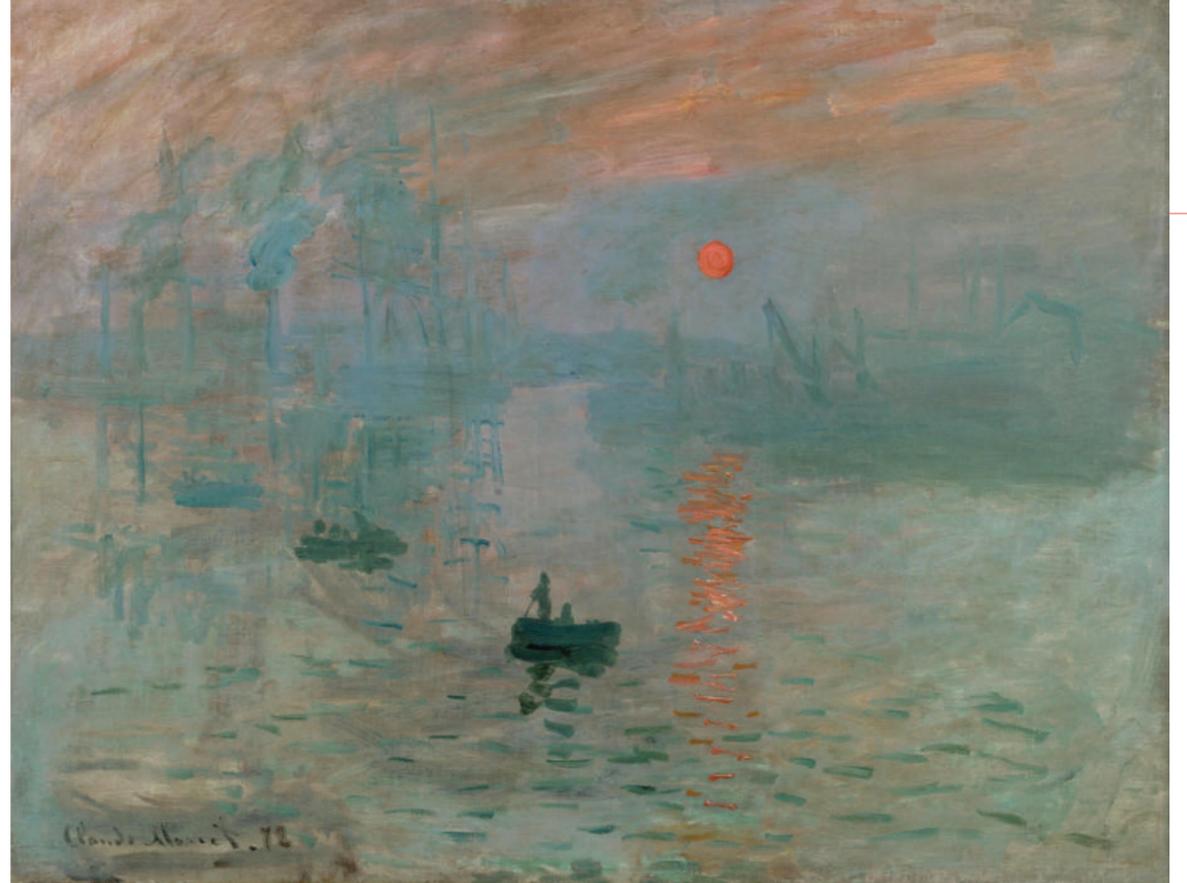
희망은 예술을 타고

예술은 쓸모없다.
우리가 당장 먹거나 입지도, 가게에 보탬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유용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현실을 재현한 형상이나 붓질의 놀림을
왜 멍하니 바라봐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술이 값비싼 재화라는 건 알지만,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는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처럼 복잡한 이 물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작은 실 한 가닥을 던져보자.
'예술'을 일종의 '심리 치료'에 빗대면서.

우리는 몸이 다치면 상처에 연고를 바르지만, 마음이 곪으면 그
보이지 않는 멍울을 풀어내기 위해 상담소를 찾아간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참아!', '마음이 아픈 것도 신체 호르몬 변화에 불과한 현상
이야', '약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많은 돈과 시간 들여서 상담까
지 받아?'... 피부에 생긴 흉터는 아물어 가는 과정이 눈앞에 보
이지만, 그 속은 이제쯤 괜찮아졌는지 혹은 아직 딱지가 지려면
멀었는지 가능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한 감정을 충분히 치유
하고 애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하게 부패할 뿐이다. 약이 일시적인 안정 작용을 도와주더
라도 가슴 깊은 곳의 트라우마를 뿌리째 뽑으려면 내면에 집중
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럴 때 심리 치료가 빛을 발한다.



GGAC's Theme 아트 인사이트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 캔버스에 유채, 48×63cm, 1872

또다시 떠오르는 태양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그린 예술이 쓸모없을지 모른다. 이들에게 희망이란 무력하게 팔랑대는 로또
종이나 날마다 변하는 주식 차트에 매달려 있을 테니까. 예술은 당신에게 한순간 일확천금을 안겨
줄 힘도, 숙원 사업을 끝낼 능력도 없다. 하지만 예술의 마법은 예술에 있지 않다. 예술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난 실수를 반성하거나 속상한 심정을 다독이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삶의 의욕을 얻기도 하는 우리에게. 마치 심리 치료의 목적이 상담가와 대화하는 것 그 자체
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듯 말이다. 그 내면과 만날 용기와 의지가 있는
한, 예술은 쓸모 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힘찬 내일을 준비하는 지금, 5명의 '예술 상담가'가 당신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들의 그림은 우리에게 함께 밝은 미래로 걸어가자고 제안한다.

"인상적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인상적이었으니까, 인상이 담겼겠지. 어찌나 무질서하고 형편없는 솜
씨던지! 그 바다 풍경보다 벽지 제작할 때 그리는 스케치가 훨씬 완성도 높을 거다." 미술평론가 루
이 르루아는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1872)를 보고 이런 혹평을 남겼다. 오늘날 <인상: 해돋
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명작이지만, 이 모네의 역작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땐 기성
평론가 무리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19세기 화가가 그려야 할 신화와 역사 관련 주제도 아니요, 윤곽선이나 채도도 흐릿명당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화가로서 자존심을 짓밟힌 모네는, 그럼에도 낙
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해와 물, 빛과 공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작품명을 내세운 '인상주의'를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화파로 자리 잡게 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모네는
일찍이 알고 있던 게 아닐까?

예술의 마법은
예술에 있지 않다.
예술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내면과 만날
용기와 의지가 있는 한,
예술은 쓸모 있다.

새싹이 자라나는 땅

일반적으로 수채화는 화가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장르는 아니다. 물성이 워낙 얇아 물감을 이르기 힘들고, 종이가 물에 불면 관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단단한 유화가 캔버스에 물감 덩어리를 구축적으로 쌓는다면, 수채는 섬유에 잔잔히 스며들면서 종이와 한 몸이 된다. 땅 위에 놓인 환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찬란한 대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 화가 찰스 더무스는 섬세하고 유동감 넘치는 선으로 뛰어난 수채화 작품을 여럿 선보였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출생인 그가 고향을 그린 <New Hope, Pennsylvania>에는 역사적인 도시 뉴호프의 델라웨어강이 담겨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선홍색 풍경을 마주하면서 더무스는 어떤 상념에 빠졌을까?



1 찰스 더무스 "New Hope, Pennsylvania"
종이에 수채, 22.9×30.5cm, 1912

2 장-미셸 오토니엘 "Blue River"
블루 인디안 유리 벽돌, 가변크기, 2021
© Othoniel / ADAGP, Paris 2021.
© Photo : Claire Dorn /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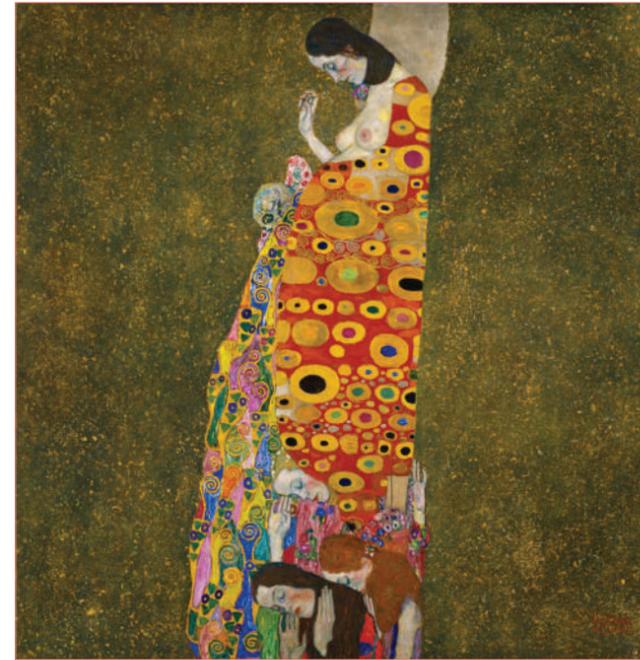
그가 붓을 움직일 때마다 물감은 물결이 되어 종이에 넘실대고, 그 강물에 반사된 인간사도 앞으로 씬 없이 나아간다. 델라웨어강이 조각으로 변신한다면 장-미셸 오토니엘의 <Blue River>(2021) 같을 것이다. 푸른 강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황금 문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폭포 같기도, 또는 우리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환상의 실크로드로도 느껴진다. 오토니엘은 유리를 만지는 과정을 "스스로 치유하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유리는 연약해서 쉽게 깨지지만, 그 시련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다. 상처를 한껏 끌어안은 후 내보내는 용기로 우리가 성장해 가듯이, 더무스와 오토니엘이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 비옥하게 가꾼 토양에서 새로운 희망이 꽃핀다.



내일을 위한 '좋은 소식'

초상화의 거장 알렉스 카츠. 그는 아내, 무용수, 연기자를 모델 삼아 팝아트다운 페인팅을 제작한다. 과감한 구도와 색감은 관객의 눈을 홀리고, 분할된 화면 구성은 인물의 생동감 넘치는 몸짓을 상상하게 한다. 그렇지만 인체의 섬세한 움직임을 평면에 완벽하게 옮겨내는 카츠에게도 '꽃'은 가장 고난도의 대상이다. 동적인 피사체를 재현하는 데 능통한 화가가 어째서 정적인 식물을 어려워할까? 카츠는 "물질성과 표면, 색상, 공간적 측면을 모두 잡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매년 여름이면 미국 메인주에 있는 별장으로 건너가 정원에 만발한 꽃을 포착하고, 이후 다시 아틀리에로 돌아와 그곳에서의 생생한 기억을 곱씹으며 캔버스에 소환한다. 꽃잎과 줄기가 뚝뚝 분절된 <노란 붓꽃>(2011)은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살랑바람에 나부껴 춤을 추는 생화로 보인다. 붓꽃의 꽃말은 '좋은 소식'. 그 바람결을 타고 조만간 우리에게 희소식이 날아올지도...

카츠가 자연의 태동에 주목했다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희망 II>(1907~08)는 임신한 여인을 작품으로 데려왔다. 임신부 배 위로 또르르 구르는 해골이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이 기도를 이어 나간다. 결국 운명은 돌고 도는 법. 죽음은 탄생의 결과이며, 인간은 백 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한다. 하지만 클림트는 이 그림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인생은 유한해서 허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든든한 아군을 증식할 수 있어서 희망적이다. 그래서 생명은 축복이리라. ◀



3 알렉스 카츠 "노란 붓꽃"
리넨에 유채, 101.6×127cm,
2011 Courtesy Thaddaeus Ropac gallery |
London·Paris·Salzburg·Seoul. Photo : Paul Takeuchi

4 구스타프 클림트 "희망 II"
캔버스에 유채, 금, 백금, 110.5×110.5cm, 1907~08

글 이현
월간 미술전문지 <아트인컬처> 부편집장. 10년째 잡지를 만들어 여러 매체에 예술과 관련한 글을 기고한다.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남자 스트라빈스키와 <봄의 제전>

GGAC's Theme
포커스



1913년 5월 29일, 파리의 상젤리제 극장.
20세기 발레곡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1882~1971)는 무대 아래에서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발레곡
<봄의 제전>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봄의 제전>이라는 제목만 보자면 마치 봄꽃 요정들이
풀밭에서 뛰놀 것만 같은 왈츠풍의 춤이 연상되지만,
사실 이 발레는 한 원시 부족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있는 처녀를 제단에 바치는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믿고 듣는 스트라빈스키의 불협화음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 곡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생동감 넘치는 독특한 리듬을 곡 전반에 깔고, 곳곳에 원시적인 느낌의 선율을 넣어 뒀다. 리듬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음악은 위태로운 느낌마저 들게 한다. 관악기들은 기묘하게 새된 소리를 내고, 현악기는 투박한 리듬을 그어 낸다. 뭐 하나 예측할 수조차 없는 음악 때문이었을까, 초연을 위해 오케스트라석에 앉아있던 연주자들은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진땀을 뺐 수밖에 없었다.

발레 안무는 또 어떠한가? 보통 발레라고 하면 튀튀(발레리나들이 입는 볼륨 있는 스커트)를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하고도 강단 있는 동작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봄의 제전> 속 무용수들은 파격적인 리듬에 맞춰 펄쩍펄쩍 뛰고, 쿵쿵 발을 구르면서 겨우내 얼어 붙은 땅을 깨우는 동작들을 선보인다. 의상과 분장도 마치 죽음을 삼킨 것처럼 기괴하다.

전작인 <불새>와 <페트루슈카>의 연이은 흥행으로 '믿고 듣는 스트라빈스키'인 줄 알고 공연장에 걸음 한 관객들은 이 공연을 보면

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연이어 들려오는 불협화음과 파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리듬이 귀를 때렸다. 거기에서 난생처음 보는 기괴한 춤사위가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것도 곡이라고 썼냐!", "스트라빈스키는 음악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무용수들에게 음악이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센 야유가 이어졌다. 안무를 담당했던 니진스키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자라도 인지할 수 있게끔, 무대 바로 뒤에서 손뼉을 치며 박자를 직접 세어 주어야 했다. 1막이 끝날 무렵에는 야유가 폭동 수준으로 번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했고, 앞줄에 앉아 무대를 보고 있던 스트라빈스키는 결국 공연장 밖으로 피신해야 했다.

클리셰 범벅인 볼륨 영화의 두 주인공

이때 객석에서 그런 스트라빈스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샤넬(Chanel)'의 수장,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스틸컷.©마운틴픽처스

IGOR STRAVINSKY



코코 샤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 fineart america

코코 샤넬이다. 샤넬은 재능이 많고 열정적인 스트라빈스키에게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궁핍했던 스트라빈스키와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업실을 겸한 별장을 내어주고, 스트라빈스키가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후원을 해주기도 한다.

방금 소개한 내용은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2009)에 담긴 이야기로, 영화는 <봄의 제전> 초연 당시 객석이 난리가 났던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후 스트라빈스키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넬에게 폭 빠져 불륜을 저지른다.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에 지쳐버린 가족들은 결국 스트라빈스키를 떠나고, 뒤이어 따라오는 장면들은 예술가의 실제 삶을 녹여냈다고보다는 클리셰 범벅인 불륜 영화에 더 가깝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샤넬마저 “나는 당신의 정부가 아니에요”라는 진부한 멘트와 함께 스트라빈스키를 떠나면서 두 유명 인사의 로맨스는 막을 내린다.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일까. 영화는 <봄의 제전>이 첫 무대에 오를 때 객석이 난리가 났던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면이 허구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혹은 거짓, 봄의 제전과 샤넬 No.5

그렇다면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 영화에서는 스트라빈스키가 <봄의 제전>을 개작하고, 샤넬이 샤넬사의 대표향수 ‘샤넬 No.5’를 제작하던 시기에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동명의 소설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역시 두 거장의 대표작이 서로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봄의 제전>은 1913년에 처음 무대에 올랐는데 ‘샤넬 No.5’는 1920년에 출시를 준비하기 시작해 1921년에서야 대중에게 공개됐다. 두 사람이 안면을 트게 된 것도 그 무렵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샤넬과 <봄의 제전>은 아예 연관이 없다.

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1920년에 스트라빈스키는 이미 복잡한 연애 문제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6년을 금실 좋게 지내던 아내 예카테리나와 4자녀를 뒤로하고, 무용수인 베라 드 보세와 바람이 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라는 파리에, 스트라빈스키는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앙글레에 각자의 가정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사는 곳에 몰래 방문하며 비뚤어진 사랑을 키워나갔다.

베라와 스트라빈스키의 밀회는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스트라빈스키의 아내는 이를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인했다고 한

다. 1939년에 아내 예카테리나가 사망하자 스트라빈스키는 이듬해 곧바로 베라와 재혼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난리 통 속에 샤넬이 끼어들 틈은 조금도 없었다. 스트라빈스키가 살아있을 때 발표한 자서전에도 예카테리나와 베라의 이야기는 자세히 다뤄진 반면, 샤넬의 이야기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되어준다.

대중들의 시린 낭만이 부추긴 해프닝

그런데 왜 스트라빈스키는 ‘샤넬의 남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샤넬 본인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두 사람의 관계는 샤넬이 스트라빈스키를 몇 번 후원했던 것이 전부다. 하지만 예술계의 두 거장을 주인공으로 한 가십이 흥미로웠기 때문일까. 이야기는 점점 와전되면서 샤넬이 그에게 집을 제공했고, 동거했다고까지 부풀려지기 시작한다.

더불어 이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노년의 코코 샤넬이 완강히 부인하지 않고, 스트라빈스키와 본인이 예전에 잠깐 사랑했던 사이인 것처럼 애매하게 언급하면서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다. 이후 두 사람의 리브스토리가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로 영화화됐고, 이 영화를 샤넬사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대중들에게 “아니 댄 굴뚝에 연기가 두 번 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두 사람이 불장난 속 주인공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쩌면 20세기 음악계의 판도를 흔들었던 스트라빈스키와 전무후무한 패션의 아이콘 샤넬, 이 두 거장의 은밀한 사랑을 바라는 대중들의 시린 낭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

글 송사비
 뮤직테이너이자 작가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12만 크리에이터가 됐다.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이야기> (클래식 사용 설명서)를 출간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급부상했다. EBS 클래스e '클래식 뮤직 드라마'(2022년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우수상 수상), 팟빵 '당신을 여는 클래식, 송사비입니다', FLO '일상의 클래식' 등을 제작·진행하며 일반인과 클래식 사이를 이어주는 주선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랑과 치유를 담은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지휘자 임헌정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아트센터에서 클래식과 함께하는 제야 공연이 12월 27일 열린다. 지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임헌정 지휘자가 맡았다. 특히 임헌정 지휘자에게 올해는 모교이자 1985년부터 교수로 재임한 서울대학교를 떠나 새로이 출발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고운 마무리와 힘찬 시작을 그리며, 사랑과 치유를 전하고 싶다”는 임헌정 지휘자에게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에 대해 들었다.

글. 편집부 사진. 김재이

스승의 사랑을 담아 여미는 막(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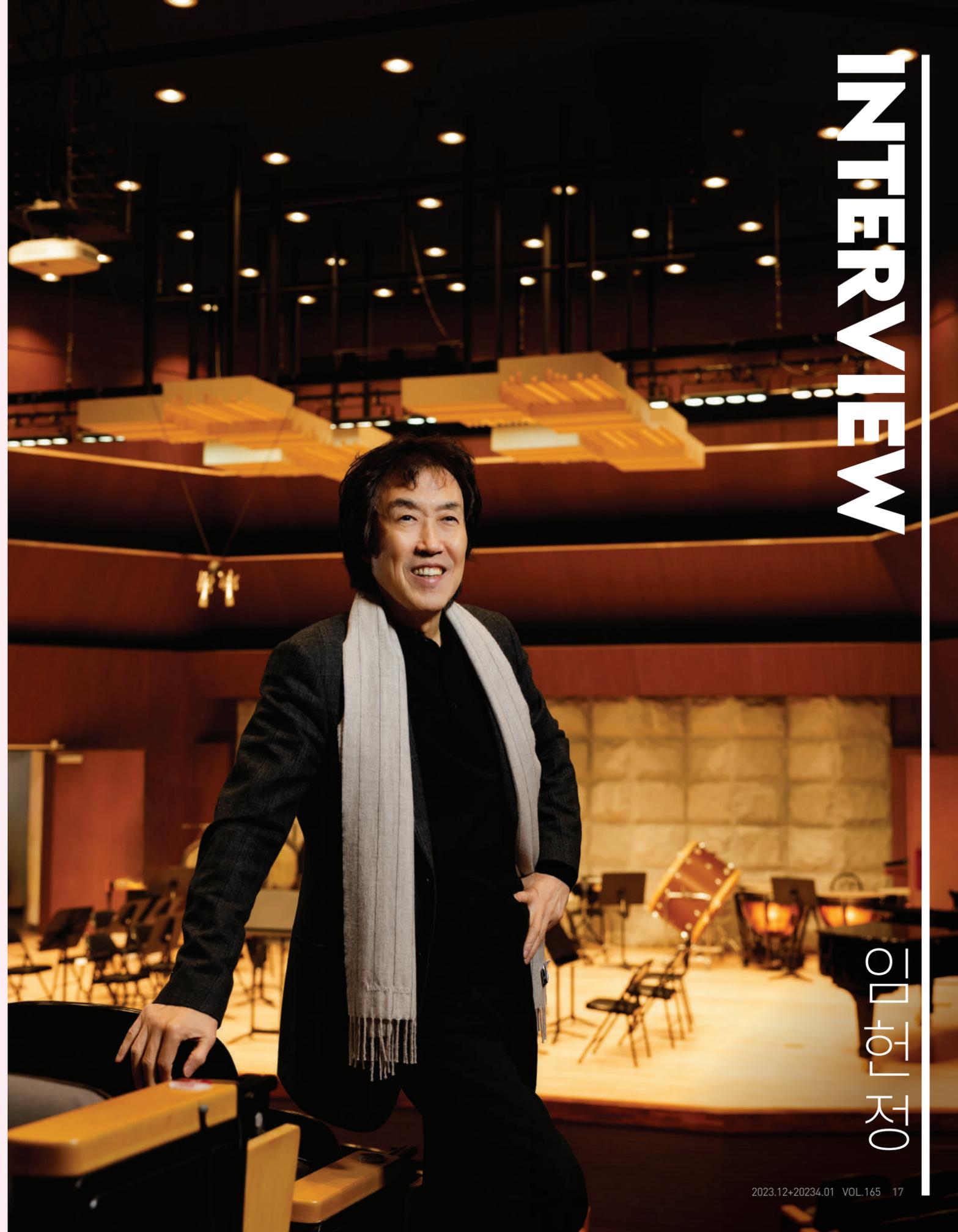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보낸 38년을 마무리하는 2023년 송년은 임헌정 지휘자에게 더욱 특별하다. “인터뷰하고 있는 오늘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이 건물도 마지막이고, 콘서트홀도, 학교도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재학 기간을 합치면 40년이 넘는 세월. 그 시간을 함께한 풍경을, 임헌정 지휘자는 ‘마지막’이라 말할 때마다 꼭꼭 눈에 눌러 담듯 둘러봤다.

떠나며 그가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이다. “예술가는 평생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선한 인재’ 아닙니까. 마지막 학교 공연 무대에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올린 데에도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죠. 우리 학생들이 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생의 한막을 여미는 임헌정 지휘자의 손길이 따사롭다.



GGAC's Theme 인터뷰 1

음악가로서 제가 사는 이유는 ‘남’을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음악을 전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이지요. 음악은 영혼의 약이니까요. ‘음악’의 ‘악(樂)’에 약초(草)를 더하면 ‘약(藥)’이 되는 이치는 우연이 아니랍니다.



INTERVIEW

임헌정



임헌정 지휘자가 준비한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신나고 힘차다. 축제(카니발)를 여는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황소도 이기는 투우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비제, 투우사의 노래(오페라 <카르멘> 中)” 등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각오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 수 없다.



임헌정의 말러 <부활> 지휘 영상
© 한경arte필하모닉 더클래식 2023

음악이란 사랑이자 치유

임헌정 지휘자는 베토벤,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등 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철저히 탐구하며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음악가다. 그가 이끈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 단체 최초 삼성 호암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클래식계에 남긴 그 발자취를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주제로 2007년 중국 베이징 한국문화원에 설치한 대형 사진 벽화에 그의 얼굴이 걸리기도 했다. 1985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 전공 전임교수로 재직했으며, 교수직을 은퇴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포항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해 왔다.

그 화려한 수식어의 목록 대신 임헌정 지휘자는 자신 또한 ‘사랑을 전하는 지휘자’로 기억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해 탐욕을 부려봤자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획’ 먼저처럼 사라져요. 아등바등 사는 사이 자신도 망가지고요. 수상과 인기에 집착하다 쓰러지는 음악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음악가로서 제가 사는 이유는 ‘남’을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음악을 전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이지요. 음악은 영혼의 약이니깐요. ‘음악’의 ‘악(樂)’에 ‘약(藥)’을 더하면 ‘약(藥)’이 되는 이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치유를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에서 전하겠다는 임헌정 지휘자다. “2024년은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상식과 인간성, 원칙과 합리성이 사라진 채 싸우는 세상, 남을 해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치유되는 송년이 됐으면 합니다.”

힘찬 새해, 새로이 올리는 막(幕)

임헌정 지휘자가 준비한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신나고 힘차다. 축제(카니발)를 여는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황소도 이기는 투우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비제, 투우사의 노래(오페라 <카르멘> 中)”, 인생은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로시니,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中)” 등 모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각오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 수 없다.

깜짝 이벤트도 곳곳에 숨어 있다. 살짝 힌트를 전하자면 “투우사의 노래”에서 관객들은 절로 ‘올레!’를 외치게 될 테고, “로시니,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에서는 이발사 피가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할 예정이다. “지휘자는 응당, 청중을 즐겁게 하려 고민해야 하니까요 (웃음)” 임헌정 지휘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힘찬 시작은 관록의 뮤지컬 스타 신영숙이 이어받아, 대표곡 “황금별(뮤지컬 <모차르트> 中)”과 “레베카(뮤지컬 <레베카> 中)”를 가창한다. 이후 신영숙과 더불어 방송 ‘팬텀싱어’에 출연한 바리톤 김주택, 무대에 오르는 현역 소프라노 박혜진이 “드보르작, 달에게 부치는 노래(오페라 <루살카> 中)”, “사랑이여, 용기를 주세요(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中)”, “레하르, 내 입술은 침묵하고(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中)”,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로 연말 밤을 포근히 감쌀 예정이다.

고조된 분위기는 잠깐의 휴식 후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으로 마무리한다. 역경을 딛고 힘 있게 일어서는 듯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배경으로, 공연을 찾은 발걸음마다 용기 있고 씩씩하게 2024년 속으로 행진하게 될 테다. ◀





한국무용의 호흡과 몸짓 이 순간 존재하는 존재의 이야기

안무가 김동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경기도무용단 <비잉=존재>는 국내외에서 활약한 자취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분야 유공 '장관 표창장', 아름다운 무용인상 '특별상' 등을 수상한 김동규 현대무용 안무가와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경기도무용단이 만나 새로운 움직임을 선보이는 창작 무대다.

글. 편집부 사진. 김재이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가

자연 앞에서 들여다보는 <비잉=존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집중하는 작품입니다.” 2023년 12월 15~1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2023년 경기무용단의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는 김동규 안무가가 ‘이미 존재하는 존재(being)’의 이유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마주하는 마음에 주목하는 데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40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던 차, 코로나19가 터졌고 모든 것이 멈췄죠.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했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겨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민 끝에 김동규 안무가가 무대로 올린 것은 ‘자연’이다. “자연을 앞에 두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잖아요. 대자연을 바라보며 누가 일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이 자연의 한 공간을 보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길,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그 시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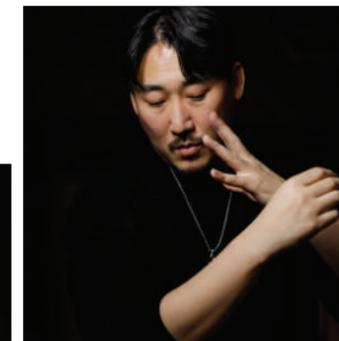
자연을 표현한 장면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바다를, 물을, 제각각 다른 바위를 표현한 장면이 많아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내가 바람이라면 새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일까 등 자유로이 상상하며 관람하시면 더욱 재미있을 겁니다.” 그 상상을 배가시킬 도움 장치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우선 특정 시간, 특정 계절이 주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 밤 튀기는 소리, 눈 밟는 소리, 아기 웃는 소리 등 구체적인 소리도 있고요. 오후의 감성, 겨울의 텅 빈 차가운 심상을 풀어낸 소리도 있어요. 회전무대로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돌아가며 흘러가는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우리를 표현합니다.’

다양한 노력을 담은 이번 무대를, 김동규 안무가는 관객들이 “그대로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무용 작품이라는 것이 완성된 형태 즉, 기성품 같은 느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뒤에는 긴 시간 많은 대화와 움직임이 있거든요. ‘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각이 60분 안에 다 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해요. 관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정서 속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거니까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작품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날, 그때의 메시지는 일회성으로 현장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거고요. 정답을 찾으려거나 의심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추측하고, 그 추측을 즐겁게 소통하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이 자연의 한 공간을 보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길,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그 시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 동작 절반 이상이 단원들의 창작입니다. 직접 작업을 해보니 열정적이고, 혼이 살아 있는 무용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와 호흡을 살려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공이 총만했던 경기도무용단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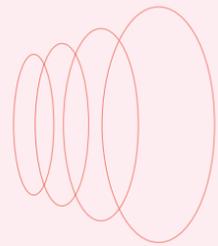
김동규 안무가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경기도무용단의 내공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언젠가 전통 무용수들과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경기도무용단과 함께하면서 작품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충분히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전통 무용수들이 추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강하더라고요. 전통무용 속 느낌의 미학 또한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점이었습니다. 경기도무용단이 아니었다면 이번 공연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경기도무용단의 무용수들은 그에게 안무가로서 욕심나게 하는 ‘존재’였다. “함께 작업하기 전에 경기도무용단의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만, 실력도 실력 이거니와 레퍼토리가 무척 넓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 공연도 활발하고, 시즌별로 협업하며 장르 경계도 넘나들죠. 그런데 다 신체 조건도 월등하니 안무가로서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공을 바탕으로 단원들은 창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 동작 절반 이상이 단원들의 창작입니다. 직접 작업을 해보니 열정적이고, 혼이 살아 있는 무용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와 호흡을 살려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습 중에 등장한 사소한 순간도 무대에 옮겨놓고 싶어서 단원들의 즉흥 동작을 과감히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동작 중 김동규 안무가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꼽은 동작은 한국무용 특유의 손목 놀림을 강조한 장면이다. “한국무용의 섬세한 손목 놀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작품 전반에 걸쳐서 그 동작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다 일부러 그 동작을 자제한 채 손을 튕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 동작 자체도 유려하지만, 일부러 반복을 멈춰 손목 놀림을 더 강조하는 거죠.” 경기도무용단이기에, 김동규 안무가이기에 완성할 수 있었던 아름다움을 품은 채 무대 <비잉존재>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감흥의 여운, 해님이 감동의 설렘, 해돋이



다사다난. 이 단어를 길어 올린다는 것은
오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묵은해를 보내는 아쉬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설렘...
이 둘의 감정물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기도의 숨은 일몰·일출 명소를 소개한다.

GGAC's Theme
내다보기

#안성

경기도 최고의 일출 포인트 몽환적인 물안개 속 일출, 고삼호수

안성의 고삼호수는 1960년에 준공한 94만 평 규모의 호수로 경기도 최고의 일출 포인트다. 원래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낚시터로 더 유명한 곳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무대로 알려지며 독특한 호수의 풍경에 매료된 사진애호가들이 꾸준히 찾는 촬영명소이기도 하다. 푸른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좌대의 풍경이 말 그대로 인상적이다. 특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풍경은 신비로움을 넘어 몽환적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감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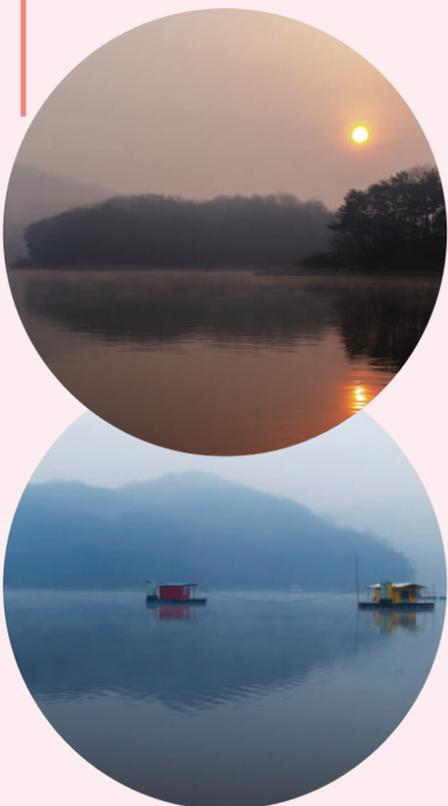
자욱한 물안개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새벽부터 달려온 고생을 견뎌도 과분할 정도다. 추천 일출 감상 포인트는 고삼면 향림마을회관 인근이다. 안전한 마을 길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작은 언덕 넘어 보이는 호수, 좁은 돌레길을 돌아서면 마주하는 호수, 마치 여러 개의 호수가 모인 듯 길과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도 고삼호수의 매력이다.

주변의 명승지로는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의 성지인 미리내가 있다. 지난 1984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천주교 성인으로 봉인된 103위의 천주교 성인의 성전과 초대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묘와 경당 그리고 사제관, 수도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주 소 안성시 고삼면 향림길 11
·문 의 031-673-9771



#남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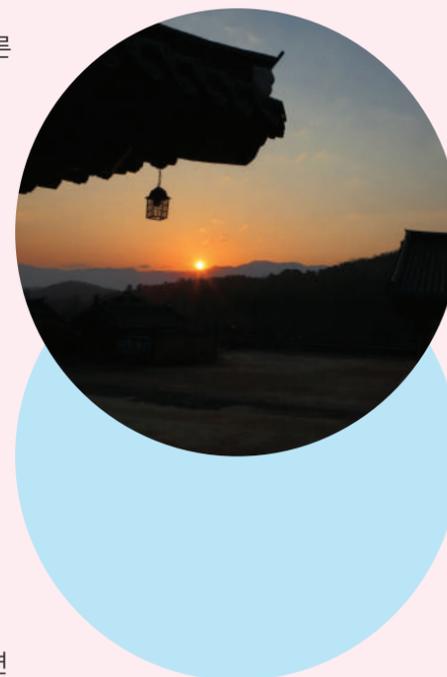
태양은 가득히, 희망은 넉넉히 장엄한 산사의 일출, 봉선사

빛을 모아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 중 남양주 봉선사에 떠오르는 태양은 장엄한 산사를 가득 품고 따스히 떠오름에 가히 장관이다. 남양주 봉선사는 국립수목원 인근에 있는 큰 사찰이다.

고려 시대에 세워져 조선 예종이 광릉의 능찰로 지정하며 '봉선사'라 이름 지었다. 전각의 이름이 모두 한자로 써진 다른 사찰과 달리 경내 곳곳에 있는 한글 현판이 인상적인 곳이다. 사찰의 중심이자 부처를 모신 전각의 이름도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이 아닌 '큰법당'이고 현판도 '큰법당'이라는 큼지막한 한글로 쓰여있다.

봉선사는 전통문화와 불교 정신이 만나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한데,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공양 전 장엄한 산사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높은 봉우리 사이로 붉은빛이 번지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설레고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다. 일출 감상 포인트는 봉선사 템플스테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운당과 참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휴월당 근처다.

멀리 축령산과 철마산 사이로 떠오르는 감동적인 산사의 일출. 그 특별한 풍경 속에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면 어떨까. 해맞이 후에는 '숲속건기명상'에 참여해 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원시림 구간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만 개방되는 '비밀의 숲'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주 소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문 의 010-5262-9969



#수원

유럽의 고성 같은 웅장한 종탑
노을빛이 노을빛에게, 노을빛전망대

역사의 도시 수원의 노을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 우선 수원화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서장대, 헬름기구인 플라잉수원, 마지막으로 노을빛전망대를 꼽을 수 있다. 아무래도 겨울인 만큼 서장대는 걸어서 오르기 부담스럽다.

헬름기구인 플라잉수원은 바람이 심하면 운영하지 않고 노을 시간에 맞추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원화성 봉돈과 가까운 수원제일교회의 노을빛전망대를 추천한다.

수원제일교회는 1953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교회로 유럽의 고성 같은 웅장한 교회 종탑의 상층부가 노을빛전망대다. 수원시와 교회가 협력해 만든 곳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방문해서 눈부신 노을 풍경을 오래 감상할 수 있다. 2012년 개방한 이래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며 지금은 수원을 찾는 여행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됐다.

이름처럼 해 질 녘 풍경이 수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팔달산 위로 펼쳐지는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화성의 성곽과 인근 마을에 불이 켜지면 반짝이는 수원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교회는 수원화성의 남문 인근에서 가장 높고 뾰족한 건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지동 286-3
- 문 의 0507-1466-1009



28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 마스터 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소멸과 탄생 감각적 몸의 언어

30

프리뷰, 둘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찰

32

프리뷰, 셋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음악계 별들이 뭉쳤다

34

리뷰, 하나

가을에 꼭 들어야 할 마스터피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6

리뷰, 둘

내면의 나를 깨우는
원초적 광음과 장르의 혼재
<디오니소스 로봇>



ON STAGE

경기필하모닉 마스터 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소멸과 탄생 감각적 몸의 언어



ON STAGE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12월 7일)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2월 8일)에서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공연한다. '젊은 명장' 지휘자 홍석원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베이스' 연광철의 랑데부는 2015년 이후 8년만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경기필하모닉, 8년 만에 다시 연주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지휘는 오페라와 발레 그리고 교향곡까지 모든 영역을 폭넓게 소화하며 '젊은 명장'이라 평가받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이 맡는다.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에서 오페라극장 수석 카펠마이스터를 역임한 그는 한국 교향악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휘자의 선두 주자로 호평받고 있다.
 경기필하모닉도 2015년 <봄의 제전>을 연주한 이후 8년 만에 이 작품을 다시 연주한다. 2021년 정기공연으로 <불새>, <폴치넬라 모음곡>, <뮤즈를 인도하는 아폴론> 등 스트라빈스키 스페셜 콘서트를 연주했던 터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지휘자 홍석원



베이스 연광철

서양음악사상 최고의 문제작
 고대 러시아의 봄맞이 제사의식을 그린 <봄의 제전>은 풍년을 기원하는 이교도들이 태양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그린다.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의 거친 불협화음과 원시적인 리듬, 타악기 연타 등 파격적인 곡 전개로 관객들이 고통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소동을 빚었던 작품이다. 하지만 다음 해에 이 작품을 다시 공연했을 때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덕분에 이 혁명적인 작품은 즉시 고전의 반열에 오르며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지휘자 홍석원·베이스 연광철의 만남
 한편 이번 공연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베이스 연광철과 함께한다. 연광철은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극장 무대에서 활약하며 독일 주 정부로부터 베를린 궁정 가수의 호칭을 수여 받았다.
 연광철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의 단역 야경꾼으로 데뷔한 후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 <라인의 황금>을 거쳐 <파르지팔>의 주역 구르네만츠를 연기하며 '바그너 전문 가수'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탄호이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바그너의 <트리스탄 이졸데>와 함께 서양음악사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문제작이다.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두 작곡가의 가장 혁신적인 작품을 하루에 감상할 특별한 기회, 바로 바그너 오페라 아리아와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을 수놓은 공연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다. ◀



경기필하모닉
 마스터 피스 시리즈 XI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일시 12.7(목), 12.8(금)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금)
 연락처 031-230-3324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찰

경기도무용단이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올해 시즌 마지막 작품인 <비잉=존재>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경기도무용단의 전통 춤사위와 현대무용 움직임이 결합한 작품으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김동규 안무가와 함께한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경기도무용단의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에서 '비잉'은 '존재'라는 뜻과 '빙빙 맴돈다'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헛바퀴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현대무용계에서 '팬텀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안무가 김동규는 존재의 이유를 탐미했다. '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사람을 보고 정말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답을 좇아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무가 김동규가 고찰한 존재의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로 존재함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본연의 나는 결국 무엇인가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번 공연 <비잉=존재>는 '움직임의 질감'에 초점을 맞췄다. 무용수들 움직임의 동기가 되는 인식에 따른 변화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탐구하며 한국무용의 호흡과 전통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너지로 창출했다.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보다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이 극명한 명제는 <비잉=존재>를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 준다. 그래서일까. 이번 작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 시작하기보다는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그 시점의 감정, 기분, 정서를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때문에 무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집중이 아닌 무엇이 무용수들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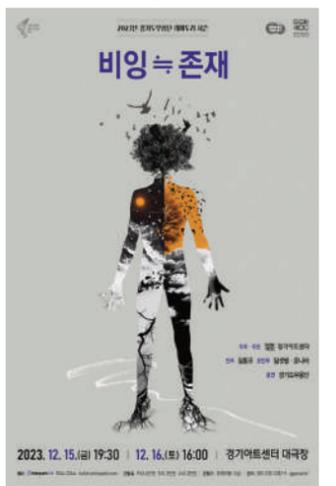
ON STAGE
프리뷰
동영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다

안무가 김동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무용수들의 몸에 담겨 움직임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담았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이 가장 순수했던 때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안무 의도를 밝혔다.

본인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억하며, 가장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생활 질감들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발현되는 움직임을 경험하길 그는 관객들에게 몸의 언어로 주문한다.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충만히 느껴볼 수 있기를, 말이다. ◀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비잉=존재>



일시 12.15(금) 19:30, 12.16(토)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312~5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음악계 별들이 뭉쳤다

2023년 12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연말을 맞이해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뮤지컬배우 신영숙 등 걸출한 협연자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1~2부에 걸쳐 오페라·뮤지컬 갈라, 교향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ON STAGE 프리뷰 세



지휘자 임헌정



바리톤 김주택



소프라노 박혜진



뮤지컬배우 신영숙

오페라·뮤지컬 갈라, 교향곡 등 다양한 장르 음악 라인업 한 해의 끄트머리, 세밀을 훈훈하게 보듬어 줄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가 펼쳐진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날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음악계의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협연자들과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임헌정이 지휘자로 나선다. 한국 최초로 말러,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무대에 올린 전설적 지휘자인 그는 화려한 경력과 명성에 안주하지 않은 채 여전히 신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해석과 기획으로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뮤지컬계 대표 디바 신영숙도 합류한다. 신영숙은 뮤지컬 <레베카>, <명성황후>, <맘마미아>, <캣츠>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완벽한 캐릭터 소화로 '믿고 보는 배우'로 정평이 나 있다. 서정적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소프라노 박혜진 그리고 최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팬텀' 역으로 활약 중인 '동양의 카푸칠리' 바리톤 김주택도 호흡을 맞춘다. 연주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오케스트라의 자존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아 풍성함을 더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중적인 음악부터 고전 명곡까지 작품 속 아리아와 넘버 이번 공연은 '송년'이라는 키워드에 걸맞은 밝고 희망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등 클래식 명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오페라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루살카>, <로미오와 줄리엣>, <유쾌한 미망인>, <라 트라비아타>와 뮤지컬 <레베카>, <모차르트> 등 다양한 작품 속 아리아와 넘버가 준비되어 있다.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한편 이번 송년음악회의 테마는 '희망'이다. 일상 속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통해 관객과 공연을 잇는 접속사로서의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밝고 희망적인 음악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중적인 음악부터 고전 명곡까지 아우르는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는 12월 2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120분간 열린다. ▶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일시 12.27(수)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264

가을에 꼭 들어야 할 마스터피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ON STAGE
리뷰 하나



가을이면 괜히 품고 싶은 감정들이 있다. 고독함이랄지 쓸쓸함이랄지, 낭만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의 분위기도 내보고 싶고, 코트를 입고 손에 커피 한 잔을 든 채 낙엽들을 밟아가며 무게도 잡아보고 싶어도 한다. 여기에 하나 더, 낭만의 완성은 음악인이라 가을에 썩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곡은 필수다.

낭만적인 선율에 흠뻑 반하다 경기필하모닉이 가을을 맞아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준비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은 기대가 컸다.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는 모르던 곡이지만 9월에 다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듣고, 3악장의 낭만적인 선율에 흠뻑 반했기 때문이다. 초반 3초 만에 마음을 훔친 곡을 라이브 연주로 또 듣고 싶어 하던 차에 마침 경기필하모닉이 연주한다고 하니 다른 일정을 다 제쳐두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던 10월 22일이 왔고 부푼 마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첫 곡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른 많은 곡이 그렇듯 역시나 처음 듣는 곡이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지라 명곡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은 생소한 곡이더라도 귀에 쏙쏙 박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초심자가 듣기에 쉬운 음악은 아니었다. 곡은 만만치 않았지만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연주는 처음 보는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멀리서 봐도 건장하고 다부진

이 청년은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힘을 쓰는 것처럼 피아노 연주에 엄청난 힘을 쏟아부었다. 마치 '나보다 피아노 세계 치는 사람 없지?'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달까! 피아노의 끝과 끝을 분주히 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그의 연주는 공연장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1906년 그 가을의 공기를 느끼다 마침내 기다려 온 2부의 문이 열렸다. 공연 시작하고 30분쯤 뒤에 나오는 3악장이 나오기까지 마음을 경건히 하고 1악장부터 차분히 듣기 시작했다. '아는 곡이 명곡'인지라 라이브로 두 번째 들으니 클래식 음악 전문가가 된 느낌도 든다. 이럴 때 이 음악을 처음 듣는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잔뜩 아는 척 품을 잡지 않았을까 싶다. 라흐마니노프가 이 곡을 초연했을 당시 일부 음악평론가는 지나치게 풍부한 음향과 과한 감정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낭만을 모르는 사람들이군' 생각하며 오히려 그런 감정의 과잉이

더 애뜻하게 다가왔다. 짐짓 센 척하며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아주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던가. 그가 있던 곳의 공기는 한국과 다르겠지만 1906년 10월부터 작곡을 시작했다는 설명은 작곡가가 가을을 타느라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곡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닐지 하는 상상까지 하게 했다.

가을에 들어야 할 명곡을 만나다 이번의 여지 없이 곡은 훌륭했고 숨이 멎을 듯한 시간이 흘렀다. 듣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연주하는 동안 단원들의 가슴엔 어떤 감정들이 흐를까? 직접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는 기분은 어떨까 내심 부럽기도 했다. 필자 기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까지 궁금해지는 건 그만큼 좋아서가 아닐까?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올해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이지만 막상 넘쳐나는 클래

식 음악 공연 속에서도 라흐마니노프는 잘 보이지 않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작곡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해의 계절에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곡을 준비한 경기필하모닉의 공연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가을로 가득 찼던 하늘도 서서히 차갑게 겨울로 바뀌어 가는 시기다. 붙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번 가을이 좋게 기억되리라 예감하는 것은 멋진 계절에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세상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음악이 있겠지만 이번 연주회를 통해 가을에 들어야 하는 곡을 딱 하나만 알려달라면 자신 있게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못 들었으면 어쩔뻔했나 싶다. 덕분에 무척이나 잘 보낸, 가을이었다. ◀

글 — 류재민
서울신문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공연 담당기자가 된 것을 계기로 틈나는 대로 공연장을 다니며 여러 공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

내면의 나를

깨우는

원초적 광음과
장르의 혼재

ON STAGE
리뷰
별

정결한 흰옷을 입은 세 마녀가 알 수 없는 말들로 주문을 외기 시작한다.
'죽음과 부활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수많은 이름들.
'어머니가 들인 자' 디오메토로, '거듭 태어난 자' 폴리고노스,
'세 번 태어난 자' 트리고노스, '소란스러운 자' 브로미오스...
광기로 치닫는 주술의 소리에 등근 달이 떠오르면 광음이 울리며
마침내 신^(神)이 온다. '둥, 둥, 둥'



예술감독 원일



영상작가 다한

디오니소스의 부활로 '태초의 나' 각성
총돌과 융합의 향연이다. 가장 대척점에 선 로봇과 신, 전자악기와 자연의 소리를 내는 국악기, 정아한 인성^(人聲)과 거친 랩이 뒤섞여 도발적인 무대를 만든다. 시 시대에 디오니소스를 불러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이다.

지난해 3월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위촉받아 초연한 이 작품은 애초 30분 분량에 6악장으로 선보였으나, LG아트센터 서울(10월 20~22일)을 시작으로 단독 무대를 마련하며 60분 분량, 9악장으로 확장됐다. 이와 함께 국악관현악이 중심이었던 '듣는 공연'은 근사한 '보는 공연'이 됐다. '미디어 콘서트'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공연은 미디어아트를 결합했고, '디오니소스' 역할로 무용수 모어(모지민)가 함께 했다. 장르의 융합은 음악 콘서트를 하나의 연극으로 확장했다.

<디오니소스 로봇>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여 '원초적 본능'을 깨우는 공연이다. 9개의 악장은 디오니소스를 소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마녀들이 주문을 외면 천지가 개벽, 디오니소스가 등장한다. 그를 통해 인간 안에 숨어있는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깨워낸다. 1악장의 제목이 '새벽, 속삭임'인 이유다. 죽은 자라는 이름의 디오니소스가 부활하는 장면이다.

원초적인 소리와 불협화음, 불규칙한 리듬이 담은 공연의 메시지는 동시대적이다. 디오니소스의 부활은 단지 '생명의 탄생'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세 마녀가 불러내는 '디오니소스'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태초의 나, 즉 꿈을 잃어버리기 전의 열정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진 '나'다. 때문에 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피로사회'에서 '자발적 노예'가 돼 자신의 본질을 잃은 사람들을 향한 각성이자, '내면의 광기'를 깨워 '나'를 바꾸는 행동을 실천하라는 주문이다.



무용 모지민



영상작가 울리버그림

국악·힙합 등 장르 융합한 서사극

무대는 '하나의 신화'다. 이번 공연에 함께 한 모어는 '디오니소스'이면서 '태초의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존재는 '신의 한 수'였다. 모어는 원일 감독이 작곡한 세계를 몸짓과 춤으로 시각화했다. 공연 전 각각의 악장이 담은 서사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으나, 표현 방식은 온전히 모어에게서 나왔다. 연습 내내 원 감독은 모어를 '나의 디오니소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무대에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디오니소스의 시선을 담아낸 영상을 함께 상영한다. 이 영상은 공연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마녀들에 의해 눈을 뜬 '도취와 광기의 신'은 신비로운 광경을 마주하며 세상의 다양한 생명에게 경외감(2악장 '웨이크 업 미러'^{Wake up mirror})를 품는다. 모어의 원초적인 움직임은 거칠고 현란하게 이어지는 음악, 불규칙적이면서도 규칙과 반복이 숨어있는 연주 안에서 상징적으로 펼쳐진다. 움직임은 곧 각성이다. 세계를 관찰하며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인 '위대한 사냥꾼' 자그레우스의 본성을 꺼내 '사냥의 시간'(3악장)을 갖는다. 분량을 확장

하며 가장 길어진 악장이다. 3악장에선 장르가 변화무쌍하게 뒤바뀐다. 음악적으로 특이나 파격적인 형식을 띤다. 사운드가 부상하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힙합' 장르로 바뀌며 랩까지 더해진다. 3악장을 시작으로 무대엔 '카니발리즘 코드'가 담긴다. 목신처럼 숲에서 깨어난 디오니소스는 사랑을 통해 정복감을 맛본 뒤, 자신 죽음까지 경험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사랑을 마치면 4악장(D-패)에서 디오니소스 패거리들이 술을 마시며 몸을 움직이고, 5악장 '추리추리(댄스 댄스 댄스)'에 이르러 광기의 순간을 맞는다. 미니멀한 사운드 안에서 풀어내는 연속적인 리듬을 통해 천태만상 축제를 보여준다. 5악장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 중 '쾌락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다양한 음향체가 누구라도 일시켜 세울 만한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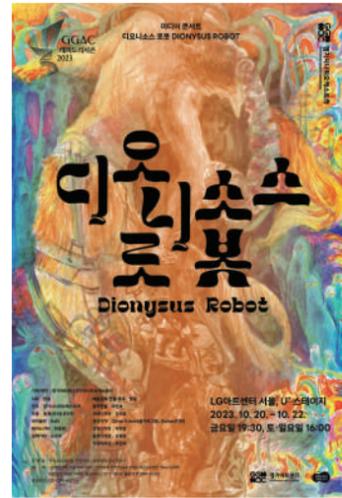
'광기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은 소멸한다. 삶과 죽음의 순간을 위한 레퀴엠이 울려 퍼지는 때다. 주어진 악보에 따라 연주하던 악단의 단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풀어내는 시간(8악장 시나위 봇)이기도 하다. '로봇'을 거부하고, 자신 안의 디오니소스를 깨운 자들이다.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시험한 연주자들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 자신의 연주"를 들려준다. 광기로 풀어낸 음악으로 혼돈의 시대가 지나면 디오니소스는 잠이 든다(9악장 빛의 말). 누군가의 부름에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사라진다.

**시나위 정신의 총체...
총돌을 통한 해소**

광란의 축제를 마치면, 한 번도 풀어나지 못한 응어리가 빠져 나간 듯 진한 카타르시스가 찾아온다. 현대적 사운드와 전통의 소리, 삶과 죽음, 로봇과 신 등 대조되는 두 속성의 총돌이 근원적 해소를 불러온 것이다. 본질만 남은 자리는 지극히 원

초적이고 원시적이다. 이 작품은 현대적 인간의 '실존 문제'를 고민한 '시나위 정신'의 총체이기도 하다. "행동을 통해서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 로봇'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극장의 크기를 늘려 소리를 실험하고, 사람으로 현현한 디오니소스를 AI 시대의 흐름에 맞춰 로봇으로 연출할 수도 있다. 원일 감독의 향후 구상 중 하나다. ◀



ON STAGE
프리뷰
메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영화 <오펜하이머> 속
<봄의 제전>의 상징성

44
이달의 책과 음반
내려앉은 시선
걸터앉은 생각

46
컬처로드
우리의 삶 속으로 성큼 들어온
미디어아트

50
예술 알고리즘
게임과 예술
그 흥미로운 관계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기타 김수유



바이올린 KoN



베이스기타 한웅원

글 ————— **고승희**
기자. 헤럴드경제 문화부에서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 공연예술과 K-팝, 미식을 담당하고 있다.



CULTURE ARTN FUTURE

영화 <오픈하이머> 속 <봄의 제전>의 상징성

<오픈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장편 영화다. 20세기 미국의 물리학자 오픈하이머의 이야기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며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과학자로서 상상 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내적 갈등을 겪으며,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한데 모아 이견 조율을 하며 고충을 겪는다. 프로젝트 성공 뒤에는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된다. 중국에는 소련 스파이 의혹까지. 파란만장한 한 인물의 인생사다.



영화 <오픈하이머> 포스터
© extmovie.com.jpg



맥카터 극장 © mccarter



봄의 제전 © WQXR

영화 속 클래식,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오픈하이머>는 관계에 관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조국과의 관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최초로,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전기적 영화라는 점에서 이 점은 더욱 부각된다.

이 영화에 쓰인 곡 중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곡이 한 곡 있었는데, 바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다. 영화 초반부에 <봄의 제전>을 듣는 오픈하이머의 모습이 장면으로 그려진다. 이 곡은 1부 '대지에 대한 경배'(The Adoration of the Earth)'와 2부 '희생제'(The Sacrifice)'로 나뉘어 있다. 1부는 총 8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1부의 2악장에 해당하는 '봄의 태동: 젊은 처녀들의 춤'(The Augurs of Spring : Dances of the Young Girls)'이 쓰였다.

왜 이 곡이 쓰였을까? 바로 '불협화음' 때문이다. 곡의 시작부터 오케스트라의 현악기가 강렬한 비트의 불협화음을 연주한다. 기존의 화성 체계가 무너지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형태다. 핵폭탄 역시 우라늄의 원자핵에 가속된 중성자를 충돌시켜 나타나는 연쇄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영화의 주제와 음악이 닮은 부분이다. 또 오픈하이머가 극 중 수많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 모양과도 맞닿아 있다. 원자핵과 가속된 중성자의 충돌, 오픈하이머와 스톨스의 충돌 등을 비롯해 여러 관계적 '충돌'을 음악화한다면, 불협화음만큼 적합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발라신과 스트라빈스키 © Stravinsky.online

스트라빈스키와 불협화음

스트라빈스키는 불협화음으로 대표되는 현대음악의 포문을 연 사람이다. 불협화음의 징조는 바그너 때부터 있었는데(대표곡 :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가 스트라빈스키다. 듣기만 해도 난해한 현대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조성'인데, 예쁘고 아름다운 '조성'의 멜로디와 화성을 파괴하며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기존 사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드뷔시가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인상주의의 포문을 열 때,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으로 원시주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 니진스키 안무가에 의해 발레로 초연된 것이 19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봄의 제전>이 1913년에 같은 안무가에 의해 발레로 초연됐을 때 관객이 소란을 일으키며 외면한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봄의 제전>(1913)은 급기야 제1차 세계 대전 발발(1914)의 미학적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야만과 본능이 살아 숨쉬는 곡으로 꼽힌다. 성질이 서로 다른 두 코드를 의도적으로 하나의 박자에 배치해 불협화음을 형성하고, 현악기가 강렬한 긴장을 가지고 악센트 위치를 바꿔가며 비트를 연주한다. 이는 기존의 조성 규칙에 벗어났기에 비합리적이고, 불규칙적이기에 비이성적이다. 이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가진 비합리성과 비이성적이라는 모순을 잘 설명해 준다. 천재적 우월함 뒤에 가려진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의 지도교수를 독살하려 한다든가, 핵무기를 만들어 성공에 도취하다가도 나중에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그렇다.

<봄의 제전>의 2부 '희생제'는 신에게 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중국엔 시체를 들고 나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오펜하이머> 역시 핵실험 성공 장면을 기점으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부에서 주인공이 국가로부터 토사구팽당하는 희생의 아이콘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희생제'와도 맞닿아 있다.



영화 <오펜하이머> 스틸컷 © kr.imboldn.com, Syncopy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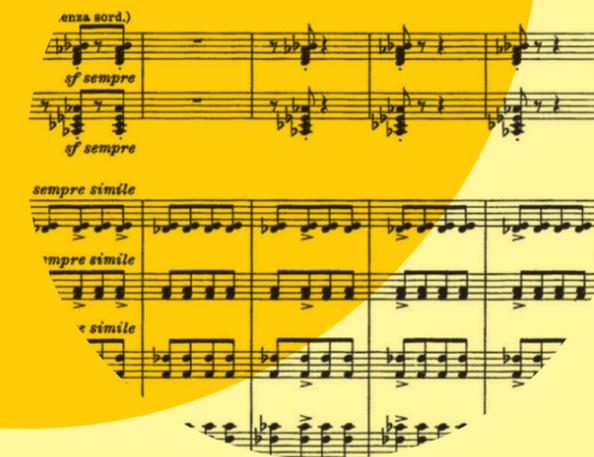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의 관계성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스트라빈스키와 아는 사이였다.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에게 독사과를 건넬 정도로 정신적인 부침을 겪었는데, 이때 들은 음악이 <봄의 제전>이라고 한다.

오펜하이머는 1966년 10월 8일 뉴저지에 위치한 맥카터 극장에서 열린 스트라빈스키의 <레퀴엠 칸티클스(Requiem Canticles)>를 듣고, 스트라빈스키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그 곡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965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1967년 2월 18일 사망했으니, 죽음을 앞둔 4개월 전의 일인 셈이다. 스트라빈스키는 그로부터 4년 뒤, 1971년에 사망했다. 역사적인 두 인물의 장례식장에는 같은 곡이 흘러나온 셈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향적 장치는 '발굽 소리'이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의 강렬함으로도 부족했는지, 사람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를 오펜하이머의 심리적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에 삽입하면서 그의 심리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영화 전체에서 <봄의 제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OST는 아니지만, 루드비히 고란손 음악감독이 유일한 기발표 곡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분석해 봤다.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 두 역사적 분기점의 관계성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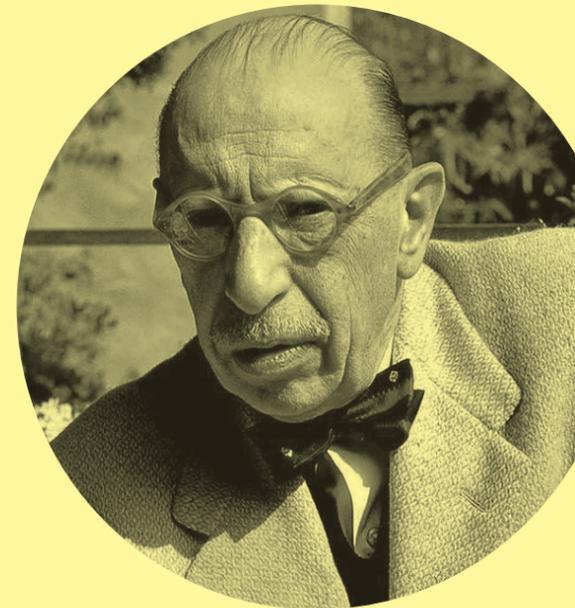
THE AUGURS OF SPRING DANCES OF THE YOUNG GIRLS



봄의 태동 젊은 처녀들의 춤 악보 © imslp



원자핵과 가속된 중성자의 충돌, 오펜하이머와 스트로스의 충돌 등을 비롯해 여러 관계적 '충돌'을 음악화한다면, 불협화음만큼 적합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 gramophone

글 진지
연세대학교 작곡과 졸업, 음악평론가이자 프리랜서 라디오 PD, 음악 강사. 선셋올리코스터의 My Jiji를 좋아하는 음악 N잡러다.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내려앉은 시선

걸터앉은 생각

한 해가 시나브로 지나간다. 지나온 발자취에 눌린 머뭇거림은 후회의 자국을, 아쉬움의 얼룩을 남기지만, 다가올 새해는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껏 잘해왔고,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위로한다. 다행이다. 책 위에 내려앉은 시선은 위로와 격려를 쓰다듬고, 음반 위에 걸터앉은 생각은 희망과 화합을 길어 올린다. 바야흐로 연말연시다.



희망의 책

저자 제인 구달 외 | 번역 변용란 | 출판 사이언스북스

《희망의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 '희망이란 무엇인가?'에서 제인 구달은 1957년 케냐 방문 중에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를 처음 만난 이후 두 사람이 생각하는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한다. 2부 '희망에 대한 제인의 네 가지 이유'에서는 희망의 네 가지 주요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3부 '희망은 끊임없이 갱신된다'에서는 제인 구달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시절에서 출발해 다음번 모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마무리된다. 진정한 영웅, 제인 구달을 만나볼 수 있는 바이블이다.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저자 엄홍길 | 출판 마음의숲

산악인 엄홍길의 희망과 나눔의 삶을 담아낸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에 달하는 16개 봉우리를 완등한 산악인인 저자의 아주 특별한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자신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오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세르파 술딤 도르지를 기리면서 그가 태어난 4,060m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마을인 히말라야 팡보체에 초등학교를 지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히말라야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은 물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의 순박한 삶을 만날 수 있다.



철학의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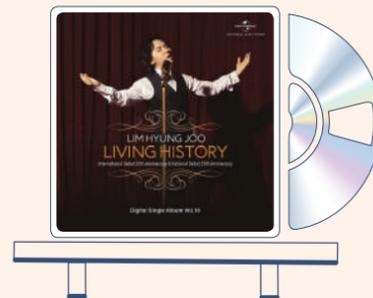
저자 알랭 드 보통 | 번역 정명진 | 청미래

불안한 존재들을 위한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 《철학의 위안》. 이 책은 인기 없는 존재들, 가난한 존재들, 좌절된 존재들, 부적절한 존재들, 상심한 존재들, 어려움에 처한 존재들을 위해 철학자들의 난해한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 세네카, 몽테뉴, 쇼펜하우어, 니체 등 철학자 6명을 통해 철학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한다. 끊임없이 위안을 구하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철학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브 몽탕 <Olympia 1974> 실황판

가을의 전설 이브 몽탕의 파리 올림픽실황판 <Olympia 1974>가 처음으로 아날로그 2LP와 2CD로 발매됐다. 프랑스 국영방송 ORTF의 아카이브를 2022년에 리마스터링해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브 몽탕의 전설적인 공연 실황판이다. 당대 최고의 샹송 가수였던 에디트 피아프의 연인이기도 했던 이브 몽탕은 1945년 영화로 데뷔하기도 했다. 이 앨범은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에 맞섰던 저항군의 투쟁가 '벨라 차오', '체리의 계절' 등 그의 전설이 담긴 29곡의 저항정신과 희망을 담고 있다.



임형주 <리빙히스토리>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세계 데뷔 20주년·국내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했다. 그의 열 번째 디지털 싱글 <리빙히스토리>다. 임형주는 1998년 초 발표한 자신의 데뷔 앨범이자 첫 독집음반인 <희망의 속삭임> 타이틀곡인 '난 믿어요'를 셀프 리메이크해 타이틀곡으로 수록했다. 2003년 세계 무대 데뷔 앨범이자 팝페라 정규 1집 타이틀곡인 아일랜드 민요 '샬리 가든' 역시 세계 데뷔 20주년 기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수록됐다. 입체적이고 선명한 사운드, 풍성하고 깊은 감동은 예전 그대로다.



넬 <디스토피안스 유토피아>

모던 록 밴드 넬(NELL)이 새 EP 음반 <디스토피안스 유토피아(Dystopian's Eutopia)>를 발매했다. 이번 신보는 2021년 정규 9집 앨범 <모멘츠 인 비트윈(Moments in between)>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새 앨범과 동명의 곡이자 넬 특유의 절망, 희망, 분노, 환희가 동시에 느껴지는 모던 록 트랙 '디스토피안스 유토피아', 공허함 속 빛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희망 찬가 '할로우(Hollow)' 같은 신곡들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 8월 발매한 팝 록 트랙 '원더러(Wanderer)' 등 2개의 선공개 곡도 담겼다.

우리의 삶 속으로 성큼 들어온 미디어아트



ART N CULTURE
컬처로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현대 미디어아트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주로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 창조된 예술 형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관객과의 상호작용과 새로운 매체를 통한 예술적 표현이 특징이다.
바야흐로 일상을 위로하는 빛의 예술, 미디어아트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디스트릭트(d'strict)와의 협업을 통해 무슈 디올(Monsieur Dior)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랑빌 저택의 분위기를 재현해 낸 디올 하우스
© www.dior.com



기술의 미학을 소재로 한 현대적인 예술의 상징

미디어아트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융합한 형태로, 과학기술의 성과물을 재료로 삼아 창조된다.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전적이고 확장된 예술 형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매체의 사용은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고, 이는 기술과 예술적 창의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예술의 만남은 현대적인 예술의 새로운 상징을 불러일으켰다.

기술의 미학은 고요한 회화나 조각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의 흐름을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다. 현대적인 예술가들은 코딩, 인공지능, 가상 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을 예술 작품에 접목하며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한 기술과 예술의 유기적 결합으로, 눈부시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현대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예술은 기술의 진보와 예술의 결합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예술과 달라진 시대정신과 기술의 발전을 함께 녹여내, 현대 예술의 상징으로 부상시킨 기술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예술의 일상적 환원

미디어아트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려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교육, 문화, 상업,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다양한 적용이 기대되는 이유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디어아트를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브랜드 광고는 단기간 내에 마케팅 효과 달성은 물론, 고객을 위한 색다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아트는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소비자에게 새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특별한 경험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미디어아트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 공간을 장식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공공 공간이나 상업 공간에서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다.



아니쉬 카푸어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담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R'
© www.noblesse.com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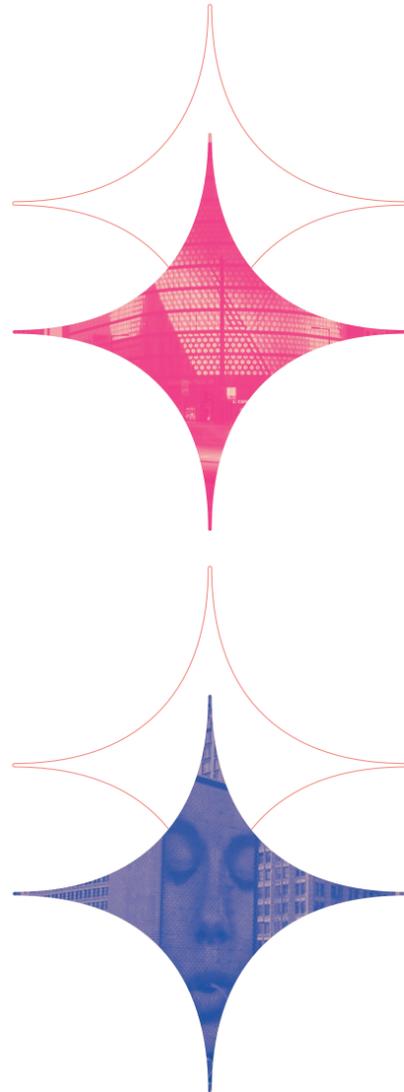


2

1. 디올(DIOR) 하우스의 콘셉트 스토어. 디올의 핵심 코드를 재해석해 몽환적이고 입체적이다. © www.dior.com
 2. 오스트리아의 쿤스트하우스(Kunsthau). 밤이 되면 표면에 비춰지는 이미지와 영화 덕분에 친절한 외계인으로 불린다.
 © Eduardo Martinez, Nicolas Lackner, Christian Plach

공공 예술분야에서의 활약 또한 눈에 띈다. 공공 공간에서 미디어아트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도시의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특히 건물의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이는 예술작품은 그 어떤 전시장보다도 다수의 대중을 손쉽게 끌어들이 수 있다. 거리를 지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만큼,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매개체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미디어파사드는 단순히 건축물의 입면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아트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관객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디지털 문화의 새로운 지평 미디어아트와 현대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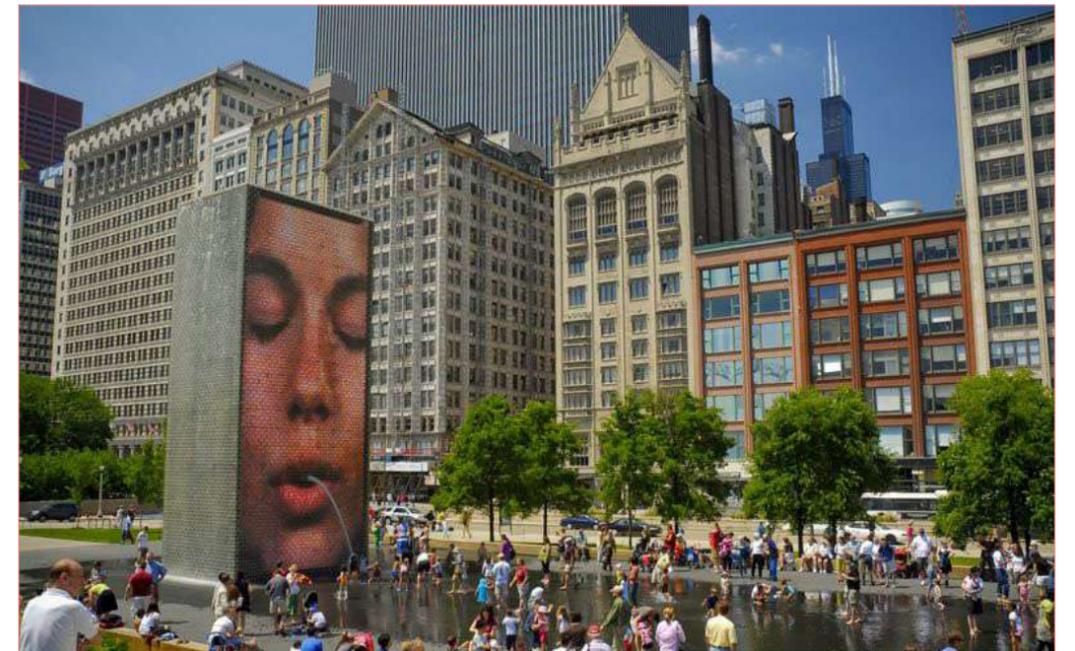
현대 사회는 융합으로 인해 많은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동안 깊이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나 현상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아트의 특징인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다양한 형태로 타 장르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길을 개척하고, 조금 더 큰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미디어아트는 예술작품의 감상을 넘어 공학적으로도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킨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융합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디어아트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성큼 들어오면서, 디지털 문화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열고 있다. 이제 미디어아트는 그 독특한 특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사회, 문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 현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

미디어아트는 예술작품의 감상을 넘어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높이 15m LED탑 크라운 분수대(Crown F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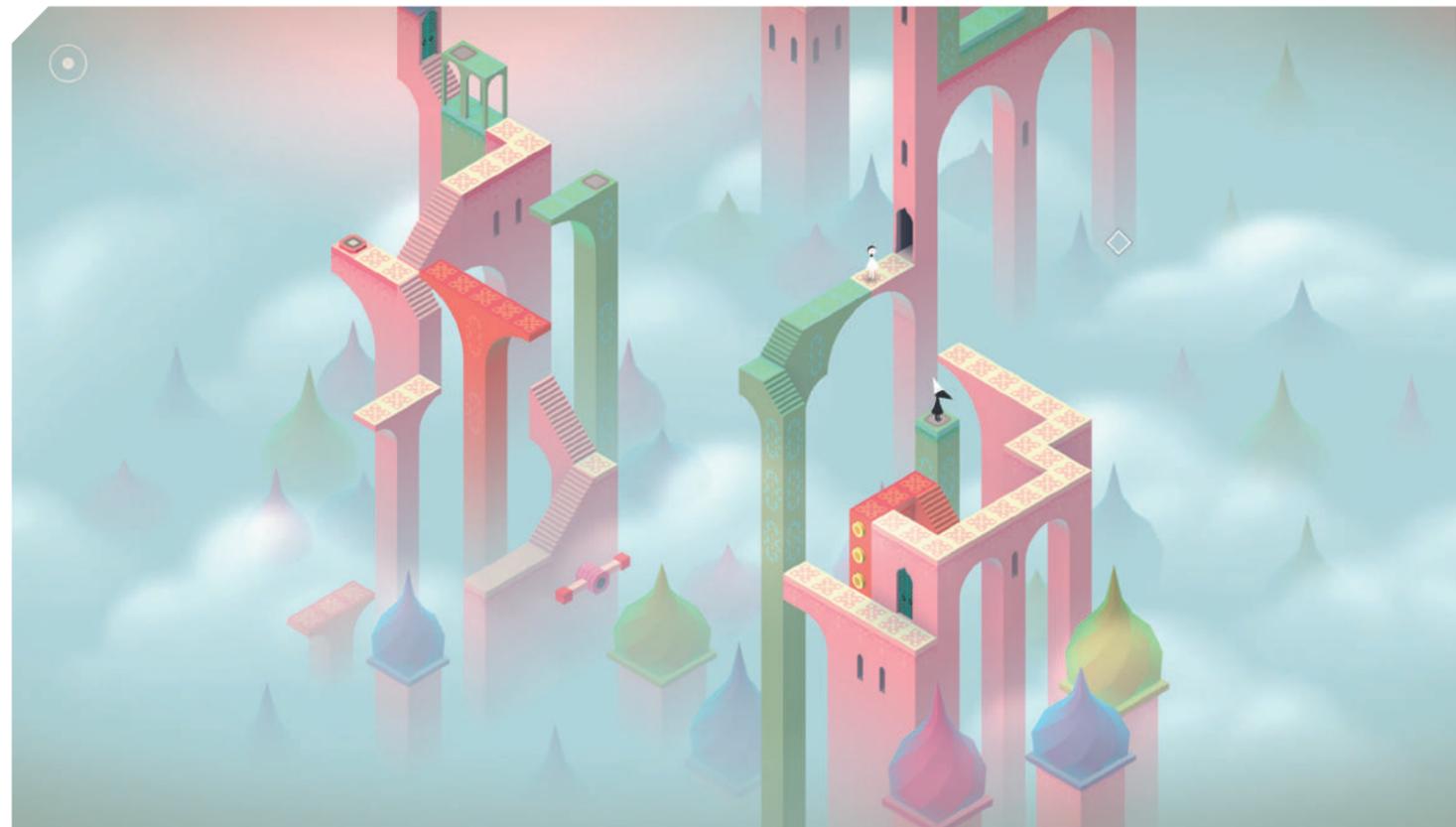
글 ————— 송은성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문화기술프로그램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과 과학,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연구하며, 미디어(사운드) 아티스트로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게임과 예술 그 흥미로운 관계



1970년대부터 비디오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현재까지 게임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니아층만 소비하던 문화로만 여겨졌던 게임은 이제 대중 전반이 소비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됐다. 그 덕분에 전 사회적으로 게임의 영향이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게임은 고급문화인 예술과의 접점을 맞으며 예술의 한 카테고리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계에서의 예술, 예술을 활용하는 게임 예술 그 자체인 게임

사실 게임에서 예술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시각·청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음향, 일러스트레이션, 움직임 효과 및 렌더링 등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야만 게임이 탄생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소설 못지않은 배경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게임을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로 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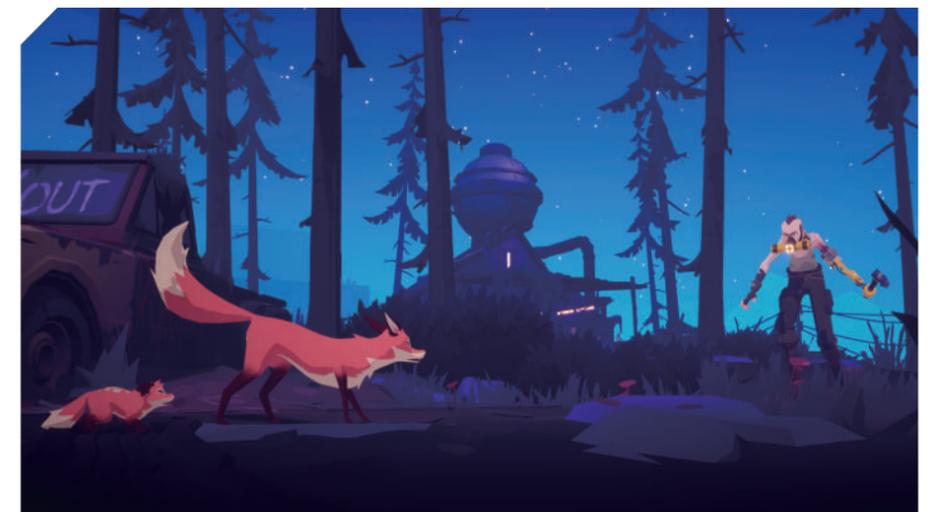
게임이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인디 게임, 또는 예술 게임이라 불리는 장르가 만들어졌다. 이는 게임의 기술을 활용하며 만들어지고 배급되는 방식도 게임과 다를 바 없지만, 색다른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들을 일컫는다. 림보(Limbo, 2010), 모뉴먼트 밸리(Monument Valley, 2014), 오리와 눈먼 숲(Orl and the Blind Forest, 2015), 할로우 나이트(Hollow Knight, 2017), 엔들링-익스팅션 이즈 포에버(Endling - Extinction is Forever, 2022), 코쿤(Cocoon, 2023) 등 해마다 다양한 게임들이 선보이며 게임의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게임 개발사 어스투(Ustwo Games)가 개발한 퍼즐 게임 '모뉴먼트 밸리'는 단계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퍼즐 디자인과 인터랙션,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음악과 더불어 모든 이들이 바로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임 설계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게임 화면 자체가 초현실주의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높은 완성도는 게임을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얻게 했다. 게임 개발사 핸디 게임스(Handy Games)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및 어드벤처 게임 '엔들링-익스팅션 이즈 포에버'는 게이머가 환경이 파괴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여우가 되어 생존하는 게임이다.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여우의 현실적인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은 다시금 환경과 동물 보호를 생각하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것도
영감을 받은
문화의 원천지에서
보여준 전시는
예술의 다양성과 더불어
예술과 게임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좌) 모뉴먼트 밸리의 플레이 화면 © Ustwo Games
(우) 엔들링 - 익스팅션 이즈 포에버 플레이 화면
© Handy Games





실시간 가상의 도시, 뉴욕
© Michael Takeo Magruder

예술계에서 게임, 점차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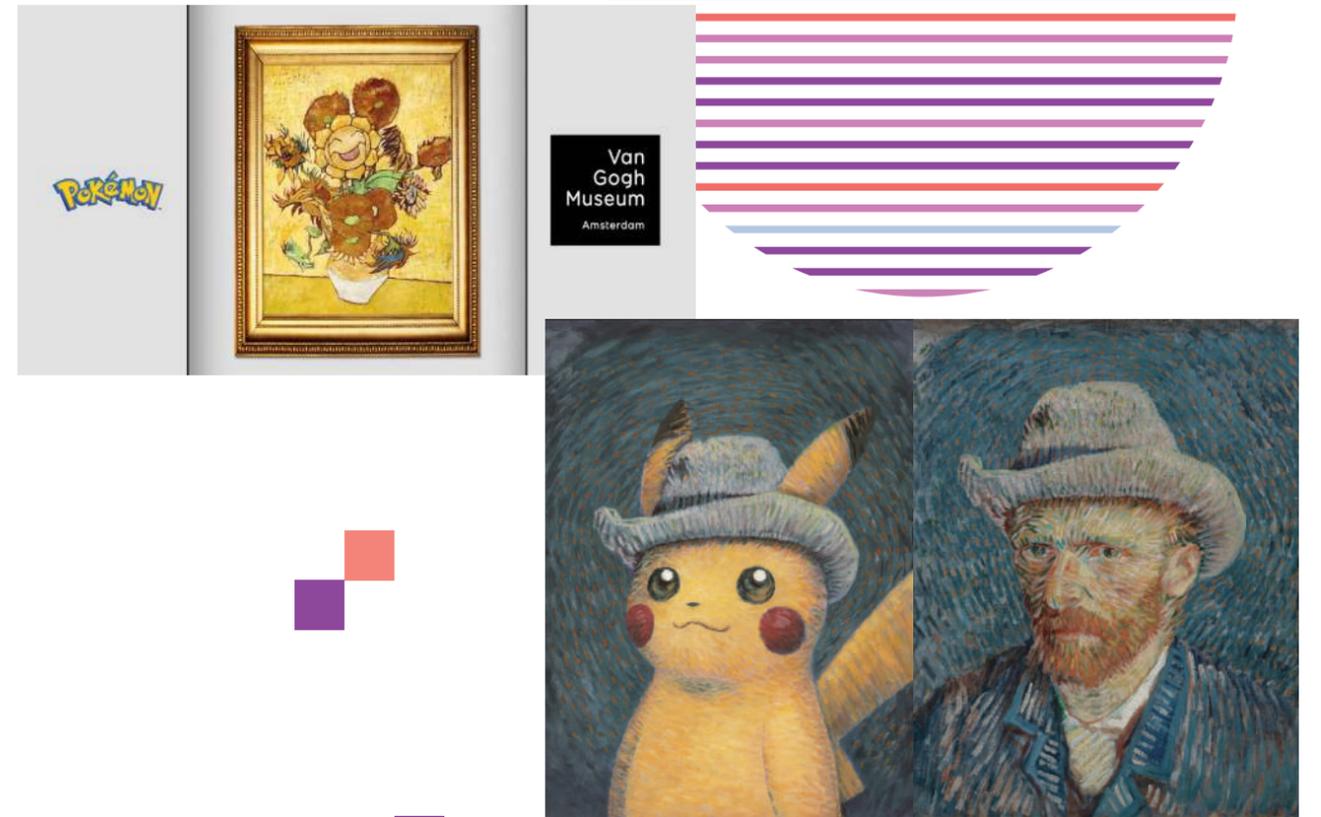
게임이 예술을 필수 항목으로 여겼다면, 그동안 예술은 게임과 큰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했다. 그러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게임에 사용되는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타자르 오시트르(Balthazar Auxietre), 이안 첵(Ian Cheng), 레이첼 로신(Rachel Rossin) 등과 같은 예술가들이 게임 기술과 예술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미술관 또한 새로운 전시의 방법으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VR, 디지털 아카이브,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비주얼 아티스트 마이클 타케오 마그루더(Michael Takeo Magruder)는 25년 동안 35개국에서 300개가 넘는 전시를 선보였다. 2019년 작품인 '상상의 도시들(Imaginary Cities)'은 영국국립도서관의 플리커 커먼스(Flickr Commons)가 소장한 책의 스캔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한 작품이다. 초기 뉴욕시의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가상도시'는 온라인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성되는 2D 맵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새롭게 3D 환경이 렌더링 된다. VR 기기인 오쿨러스를 착용한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이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 실재하지 않지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마주할 수 있다.

예술과 게임의 만남, 두 문화가 만들어 내는 시너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은 최근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다. 바로 '포켓몬스터와의 협업 전시였다. 인기 게임이자 소설, 만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프랜차이즈와의 만남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미술관은 전시 개장에 앞서 화가의 화풍으로 완성한 포켓몬의 초상화와 더불어 이에 관련된 굿즈 디자인, 영상 등을 공개했다. 그 덕분에 전시가 열리자마자 미술관에서는 밀려드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미술관이 게임 캐릭터를 전시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홍보 목적이 가장 컸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 '우키요에'라고 불리는 일본 판화를 비롯한 일본 예술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영감을 받은 문화의 원천지에서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문화와의 조우를 보여준 전시는 예술의 다양성과 더불어 게임과 예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네덜란드 반고흐뮤지움의 50주년 기념 '포켓몬스터' 협업 전시 풍경
© Van Gogh Museum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으로 표현된 피카츄와 화가의 초상화 © Van Gogh Museum

예술과 게임의 관계, 하위문화에서 예술과 동등한 존재가 되다

최근에는 게임과 예술을 '놀이' 또는 '유희'라는 공통적인 맥락 안에 놓고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위문화로만 여겨졌던 게임이 고급문화인 예술과 같은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게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게임과 예술에 대한 논의와 전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89년 뉴욕 동영상 박물관에서는 '뜨거운 회로: 비디오 아케이드(Hot Circuits: A Video Arcade)' 전시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2012년 뉴욕 현대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게임 14점을 소장품 목록에 추가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게임과 예술에 대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대전시립미술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2021년에 공동 주최한 전시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게임과 예술의 관계를 생각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여전히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게임에 관대한 미국에서도 게임과 예술의 관계는 논란이 되는 이슈다. 그러나 게임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게임이 예술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 ◀



글 박민정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UX 디자이너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다. 이후 디자인프레스 등과 같은 매체에서 디자인과 예술 분야의 트렌드를 다룬 기사를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일러스트 작가, 두산 두피디아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우리가 무대를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동과 환희, 낯것의 몸짓과 땀, 무대를 가득 메운 에너지와 열정은 오직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관객들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예술인과 그들의 열정에 화답하듯 현장을 찾은 관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Art N Culture #공연테크

내일도 기대된다. :)

초청해 주신 분께 감사^^

ttjin.183cm.7n

모두의 기쁨 모두의 피아노

♥ #경기피아노페스티벌 #피아니스티진상

처음 보는 피아니스트 아처그린님의 쇼팽 발라드 1번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영을 그랜드피아노 20대 이상으로 연주한 프로그램이 정말 스페셜하고 인상 깊었다. 그리고 경향이 없어 사진을 출연진분들과 못 찍었는데 이진상 교수님과 한 컷 찍어서 정말 다행이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 보는 즐거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queenbee0703

♥ #춤의향연 #전생애중전마마였을까

이번 토요일 상설무대 '춤의향연' 공연은 순도 100퍼센트의 즐거움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 '타악기' 중심의 공연이어서 그런지 쌓여있던 번민과 잡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흥'이 넘치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진정 국악과 한국무용은 '흥'이 난다.

정말로 잊지 못할 하루~~

탄탄한 모어 모자민 무용수 짱^^

gomdolabug

♥ #디오니소스로봇 #모어모자민 #시나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옆 공연장에서 진행 중인 뮤지컬 '벤허'가 전혀 부럽지 않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공연을 관람한 동생도 만족하는 반응을 보고 이번 공연을 잘 골랐다는 뿌듯함도 들었다.

마지막은 아쉬워ㅠㅠ

그래도 재밌고 행복했당!!

다음을 기약하며^^

eunsil437

♥ #이동진 #랑데북 #김중혁 #허클베리핀

오늘이 랑데북 마지막 날이었다네. 마지막인 건 슬펐지만, 재미난 얘기 들느라 행복했네^^ 반복되는 일상에 큰 기쁨이었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책, 영화, 음악 얘기 들으면 욕심이 난다. 저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고 싶다. 김중혁 작가님의 재발견!!

우리 음악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젊은 음악인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합니다!!

choloks

♥ #고영열 #김수인 #월하정인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브랜드콘서트 <월하정인>.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중 하나로 소리꾼 고영열 님, 국립창극단 김수인 님 공연 다녀옴. 오늘 용인은 가을이 무르익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을 만끽해야 하는데, 10월 중순 주말을 채워준 '참' 감사한 공연이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배우님들^^

무대 위와 뒤에 계신 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dreaming_seo

♥ #경아센 #소극장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나에게 특별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소극장에서 오랜만에 본 연극이었다. 무대와 객석의 오묘한 만남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세상 같다. 현실을 잊게 해 주면서도 그야말로 솔직하게 다가온다~ 피할 수 없다. 내 눈 바로 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퇴근 후 한걸음에 달려온 연주회

행복 씨 복 받을 거야~~

yoon_life_advisor

♥ #마에스트로이병욱 #피아니스트박종혜

깊어져 가는 가을 저녁에 듣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슬픔일까? 쓸쓸할까? 사랑일까? 그 모두를 버무린 낭만일까? 달은 어쩌자고 이렇게도 환한지! 현악기도 관악기도 좋으나 팀파니 연주의 매력과 에너지에 내 심장에 함께 동동동 박자를 맞춘다.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NEW YEAR'S CONCERT

김선욱 예술감독 취임기념 기획 김선욱 피아노 백건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문화재단

MOZART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Overture from Opera 'The Marriage of Figaro' K.492

SCRIABIN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Piano Concerto in f# minor, Op.20

BRAHMS 브람스 교향곡 1번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2024.01.12
FRI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 인터파크 1544-2344
경기아트센터 www.ggac.or.kr
주최 경기아트센터 031-230-3440



58
GGAC VLOG
어서 와 여긴 처음이지!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숨은 명소

60
담당자의 노트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나에게 예술의 의미를 다시 물어본다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ER
12·1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GAC STORY

어서 와 여긴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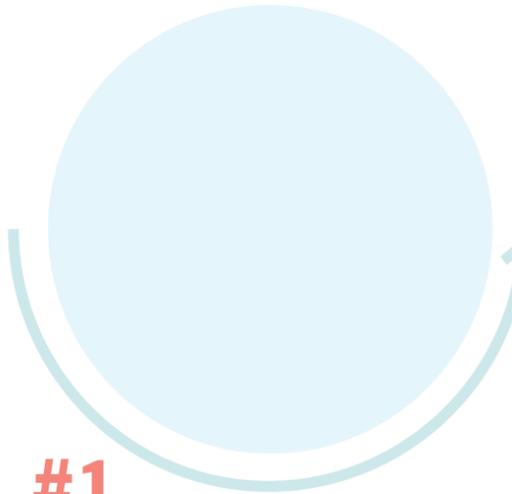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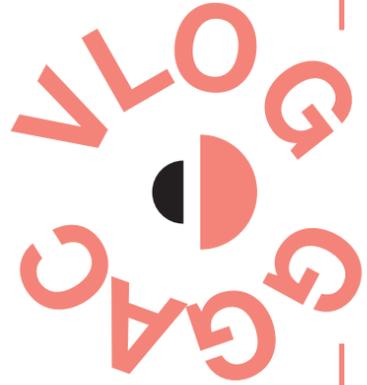
: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숨은 명소 VLOG

GGAC STORY GGAC VLOG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의 숨은 명소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은 지난 2004년 7월 개관한 이래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강습실, 합주실,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등 완벽한 문화 제반 사항은 물론 끊임없는 첨단 시설 구축으로 전문적이며 앞서가는 문화 선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최상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예술을 일상으로, 일상을 예술로 이끄는 아름다운 경험, 경기국악원 전통예술강좌가 이뤄지는 강습실입니다. 경기도 대표 국악예술교육프로그램인 경기국악원 <오늘수업>은 장르별, 대상별로 운영되는데요. 성인강좌와 어린이강좌를 포함해 총 24회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2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 '국악소풍'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국악소풍'에 참여해 즐기고 배우며 전통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국악원은 경기도민과 전통예술의 아름다운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4

짜잔, 제가 지금 막 연주복으로 환복을 했는데요. 실제로 공연 때 입는 옷이랍니다. 이처럼 작품의 콘셉트와 분위기에 따라 의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섬세한 작업을 거친 소품들로 화려한 무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저 예쁘죠^^
시집가도 되겠죠!



여기서 전통악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3

여기는 소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인 악기보관실입니다. 북, 징, 장구 등 다양한 전통악기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관리도 매우 중요하데요. 사람의 수명이 각각 다르듯 악기 수명 역시 다르답니다. 특히 가죽 등의 악기는 온도와 습도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5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피·땀·눈물이 현장, 합주실입니다. 특히 경기국악당에 위치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시나위' 정신으로 가장 한국적인 음향 정체성과 세계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여긴 아주아주 숨은 비밀의 공간인데요. 연주하고 힘들 때 잠깐 눈 붙일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 깃들듯 연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살짝 달래는 꿀 같은 장소랍니다.

이아영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생활 프로젝트 단원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을 거쳐 2021년 연수단원, 2023년 프로젝트 단원까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생활 요청'을 받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대표 MZ 단원으로 뮤지컬 <금악>, 컨템포러리 한국음악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등 다채로운 공연에서 여러 빛깔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나에게 예술의 의미를 다시 물어본다

공연기획팀 담당자의 노트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공연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의 시작

지난 7월 경기도 소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이 '기회소득 이외에 전시, 공연 등 예술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탄생한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그중 필자는 예술인들의 음악 부문 공연을 맡았다. 경기아트센터 광장, 가평 음악역1939, 광주 남한산성, 의정부 음악도서관 총 4곳에서 6일 동안, 61개 단체, 176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했다.

예술은 춥고 배고프다

사람들은 "예술은 춥고 배고프다"고 한다.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말이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다. 정말 성공한 예술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다수의 예술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수반되는 어려움과 제약에 예술 활동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술이 춥고 배고픈 것은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이 배고플 필요는 없다. 예술인의 활동은 활동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무한히 창출한다. 우리가 또는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이유이다. K팝, 한류... 한 사람의 몫으로 이뤄낸 일이 아니다. 주위에 노력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에게는 창작물 발표의 기회를, 도민에게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도내 약 300명의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술인 기회소득을 밑거름으로 전시, 공연, 체험 등 도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체험Day와 전시

GGAC STORY
담당자의 노트

예술지원 사업은 너무 많다?

여러 해 동안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이는 문화계 전반적으로 많은 위축을 가져왔다.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다양한 창작 지원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 인터넷에 예술인 지원만 쳐도 참 많은 사업들이 나온다. 혹자는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뭘 또 하나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정이 다르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예술정책, 그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의 규모, 지원 사업의 종류까지.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난다. 어쩌면 이런 지속적이지 못한 일회성인 정책들과 급조된 지원들이 예술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차인설영의 도자기



도예체험

글 우태균
(경기아트센터 공연기획팀 과장)

멀티 업무가 안 되는 사람인데 팀에서 기획공연, 프로젝트 사업, 공연장 대관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나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팀 회의 시간에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담당하라는 팀장님 말씀에 한 번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내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회사 생활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나 행사 내용만 들어도 소위 말하는 '각'이 나온다. 공연 준비 시작도 안 했지만 공연장에서의 공연도 아닌 야외 공연, 지역 예술인과 공연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공연장에 유명인이 나오는 공연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예술과 문화가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참여 신청서를 보기 시작했다. 성의 있게 작성한 지원서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지원서, 작성하다 말고 대충 낸 지원서 등 보자마자 넘겨지게 되는 지원서들도 있었다. 역시나 귀찮은 일이구나 생각하는 것도 잠시, 이 많은 지원서를 계속 보다보니 이들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지며, 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내가 '귀찮다고 생각한 것이 누군가에게겐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보게 됐다. 그 옛날 건반을 고치겠다고 땀 흘리며 대중교통을 타고 낙원상가에서 가 수리를 맡기고, 친구들 연극 작품 도와준다고 이를 동안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무대 세트에 망치질을 하던 그 시절, 그 때의 열정이 생각났다. 공연을 진행하면서는 생각한 것보다 실력이 뛰어난 참여자가 많아서 너무 놀랐다. 어떤 팀의 공연을 보면서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떤 팀은 너무 신나서 손을 들고 노래도 흥얼거렸다. 또 어떤 팀의 자작곡은 가족을 생각하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실력도 실력인데 무엇보다도 그 짧은 20분의 공연을 위해 먼 곳까지 와준 고생과 열정, 공연을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성의에 담당자로서, 공연을 관람한 일반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다. 많은 관람객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폭풍 같은 10월은 힘들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예술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계기가 됐다. 문화기관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당연함으로 예술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렸던 것 같다. 만약 이 사업 담당자를 정하던 때로 돌아가 나에게 "이 사업을 할 거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이제는 고민 없이 진심으로 "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참여했던 예술인처럼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싶다. ◀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www.ggac.or.kr

12+01
2023 + 2024
VOL.165

GGAC Story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김학민 신임 이사장 취임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획 높일 것

경기아트센터 신임 이사장에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선임되어 10월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새롭게 선임된 경기아트센터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2년이다. 신임 김학민 이사장은 출판문화계에 몸담아 오며 한길사 편집장을 비롯해 학민사 대표로 500여 권의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기획·편집·출간했다. 문화예술대학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문화출판계를 비롯한 문화기관에서 활동한 연륜으로 향후 직무 수행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취임 일성으로 “경기아트센터 소속 예술단이 합동하는 공연 레퍼토리 개발과 다양한 공연방식의 창조, 예술 소외지역을 위한 공연추진, 예술단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솔리스트 인재교육·양성과 공연활동 권장 등을 위해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힘쓰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좌), 경기아트센터 김학민 신임 이사장(우)

경기아트센터, 대중상영화제시상식 공동주최 예술이 공존하는 영화제, 경기도 첫 개최

경기아트센터가 대중상영화제조직위원회와 함께 11월 15일 ‘대중상영화제시상식’을 공동주최했다. 올해로 59회째 맞은 대중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역사 깊은 영화제로, 경기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창출”이라는 비전이 이번 대중상영화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소외된 영화인들까지 아우르며 ‘기회를 나누고자 모두가 참여하는 기획으로 공감과 감동을 선보였다. ‘대중이 주목한 시선상’을 확대해 단역배우, 스타트맨, 보조스태프 등 영화계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한편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심사단 100명을 선정해 본심에 참여시키는 등 영화제의 신임도 상승과 독립성 보장에 힘을 썼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컨벤션홀, 야외광장 등에서 시상식을 비롯해 경기도예술단 축하공연, 레드카펫, 리셉션 등의 부대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여러 영화인에게 ‘기회’가 되는 영화제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독’ 숏박스와 김해준TV 등 인플루언서를 통해 만나보다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숏박스’, ‘김해준TV’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진행했다. ‘숏박스’는 스케치코미디 영상을 게재하는 채널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독’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아트센터를 배경으로 ‘5분만 쉴까?’라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코미디언 김원훈과 조진세가 행위예술가로 등장해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40만 회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11.24 기준). ‘김해준TV’는 일명 ‘부캐(부 캐릭터)’를 내세우며 페이크 다큐 형식의 코미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이다. ‘예술인 기회소독’을 통해 예술인 생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한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독’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과 경기도청, 경기민원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술인 기회소독’
<5분만 쉴까?> 시청하기



경기아트센터 ‘2023 거리로 나온 예술’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예술

경기아트센터 ‘2023 거리로 나온 예술’이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곳곳에서 활발히 열렸다. 2023년 상반기 중 경기아트센터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1,000여 개 팀의 예술인들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1,500회에 달하는 거리공연 혹은 방문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2023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내의 다양한 야외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곳을 직접 방문하며 악기연주, 댄스,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전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 동아리 등 예술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생활 예술인들에게도 공연의 기회가 주어졌다. 매주 주말 경기 동·서·남·북부 4개 권역에서 동시에 공연을 개최하며 더 많은 이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장이 됐고, 예술인들에게는 현장에서 관객과 가까이 호흡하며 열정을 펼치고 예술의 기량을 높이는 장이 됐다.



경기아트센터, 2023년 하반기 신규 입사자 임용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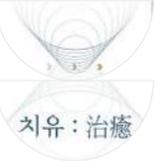
경기아트센터는 11월 1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합격한 신규 입사자 3명(염한글, 송현정, 김다빈)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으로 경기도 산하 24개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62.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월 23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9월 16일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10월 20일 경기아트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기아트센터 임원진과 외부 면접관 참석 하에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필기시험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 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를 도입했다. 약 1주의 교육기간 동안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의 강의, 백스테이지 투어 등 공연예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진 신입사원들은 11월 1일부터 경영지원 부문, 공연사업 부문, 홍보 부문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 부서에 배정되어 센터의 일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 12 December

GGAC Story Calendar

2024 01 January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 1  이울림 17:00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 031-230-3262-9 | 2  반향 2023: 치유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89-6474 |
| 3  16:00 | 4  | 5 | 6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7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5 | 8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5 | 9 추억을 부르는 그리운 우리가곡 17:00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 031-230-3262-9 |
| 10  | 11 | 12 | 13 | 14  | 15 강기무용단 <세양존재>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12-5 | 16 16:00 The Party 17:00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 031-230-3262-9 |
| 17 | 18 | 19 발레판타지아 in Christmas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7 | 20  Ba Fam Sia Christmas | 21 | 22  The Party | 23 |
| 24 | 25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호두까기인형 13:00 /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67 | 26  호두까기인형 | 27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4 | 28 | 29 | 30 |
| 31 | | | | | | |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031-230-3267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신년음악회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3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 |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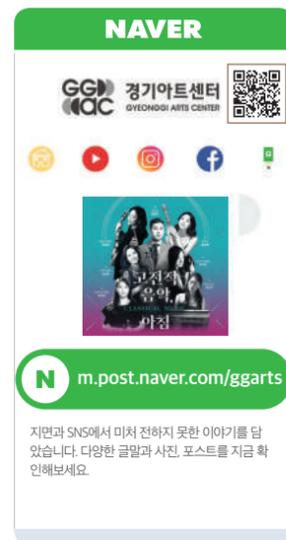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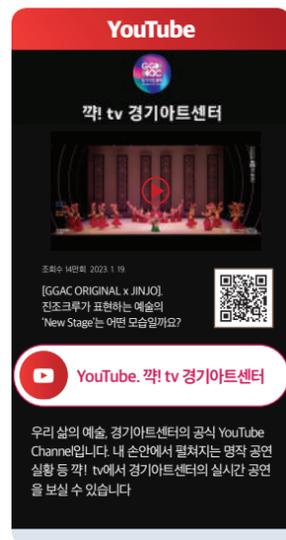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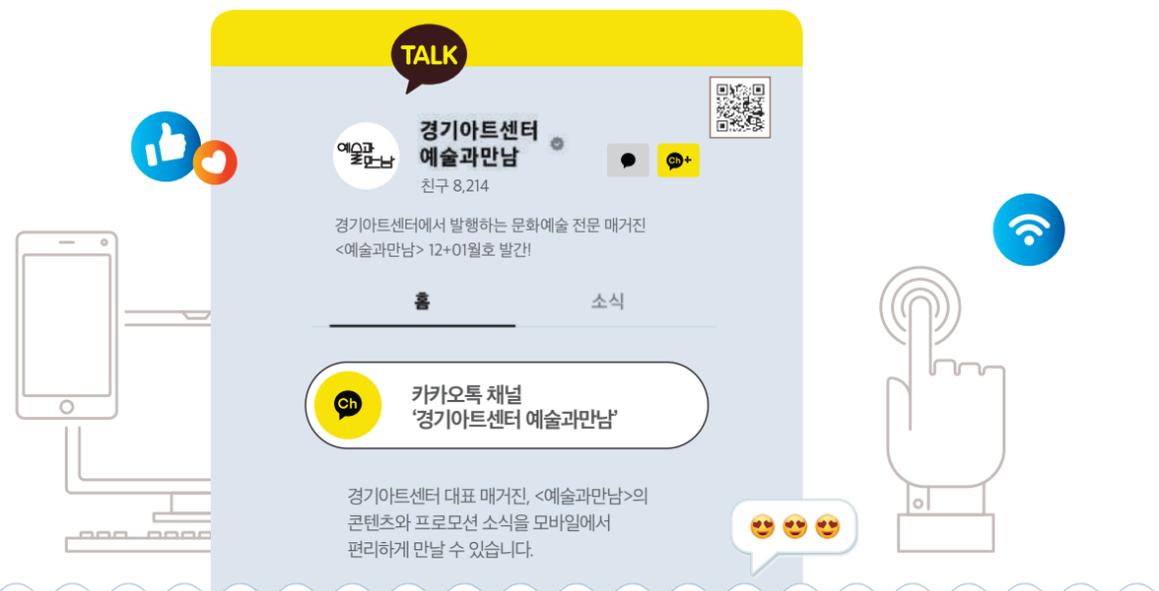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만남

경기아트센터 매거진 <예술과만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e북,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리하게 매거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소식,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으로,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 @magazineggac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지휘자 임현정
뮤지컬배우 신영숙
소프라노 박혜진
바리톤 김주택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그램]
P. I. Tchaikovsky
Symphony No. 5 in e minor Op.6 의

2023. 12. 27. Wed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VIP 7만원 R 6만원 S 5만원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2344 ticket.interpark.com 문의 031-230-3264 www.ggac.or.kr 주최·주관 경기아트센터

